

<한국언론학회 특별세미나>

5·18과 언론 : 민주주의와 '기억의 장'에 대한 성찰

| 일시 | 2014년 5월 9일 (금) 14:30 ~ 17:30

| 장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  5·18기념재단

| 주관 |  한국언론학회,  한국기자협회

| 후원 | 5·18민중항쟁 제34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일 정 표

| 구 분 | 프 로 그 램 |
|-------------|---|
| 14:30~14:40 | < 개 회 > - 개회사 : 김동규 (한국언론학회 회장),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 인사말 : 오재일 (5·18 기념재단 이사장) |
| 14:40~16:00 | < 주제발표 > - 사회 : 강상현 (연세대) < 제1주제 > 집합 기억의 재현: 매체 서사(media narrative)로서의 5·18 - 발표 : 주재원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 토론 : 한 선 (전남대 518연구소) 김수정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 제2주제 > 사이버공론장에서의 5·18 담론과 그 변화 : 일베저장소를 중심으로 - 발표 :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학준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 토론 : 이기형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홍성일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
| 16:00~16:10 | < 중간 휴식 > |
| 16:10~17:30 | < 종합 토론 > - 토론 : 고승우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 구길용 (뉴시스 기자, 광주전남기자협회 회장) 김세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주명 (CBS 해설위원장) 안영춘 (월간 <나·들> 편집장) 정필모 (KBS 논설위원, 현 <미디어 인사이드> 진행자) |
| 17:30 | < 폐 회 >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먼저 5·18민주화운동 제34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학회 회원님과 80년 해직 언론인협의회 관계자들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세월호의 참사'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5·18관련 단체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술세미나는 「5·18과 언론 : 민주주의와 '기억의 장'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로 연구자·언론인들을 모시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과정에서 한국 언론이 수행해 왔던 역할과 이를 역사 속에 어떻게 올바르게 자리매김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난 2011년,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들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됨으로서, 5.18민주화운동은 이제 대한민국의 5.18에서 세계 속의 5.18로 그 가치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과거를 청산하기는커녕 이를 왜곡·은폐하면서, 이미 잘못되었다고 평가된 권력을 복원, 미화하고자 하는 어두운 면들이 있음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사회 일부 극우언론과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이 조직적으로 왜곡·편파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언론이 이를 외면하거나 동조하고 있다는 점은 더더욱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1980년 당시 신군부에 맞서 검열폐지와 언론자유 운동을 하시다가 해직된 언론인들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은 5·18 당시 엄격한 언론 통제 속에서도 신군부의 권력에 맞서 진정한 언론인의 자세를 보여주었으며, 그 용기야말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언론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 또는 사회의 목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언론매체들은 올바른 역사의식이 결여된 채 구시대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언론의 정도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를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언론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그 과제는 무엇인가를 탐색하여 ‘역사와 함께 하는 한국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5·18민주화운동을 둘러싼 현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리오며, 특히 오늘의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한국언론학회 김동규 학회장님과 한국기자협회 박종률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재 일

5·18기념재단 이사장

2014년 5월 9일



1. 집합 기억의 재현: 매체 서사(media narrative)로서의 5·18 1

발표 주재원 | 동의대학교

2. 사이버공론장에서의 5·18 담론과 그 변화 : 일베저장소를 중심으로 19

발표 정근식 | 서울대학교

김학준 | 서울대학교



| 주제발표 1 |

**집합 기억의 재현:
매체 서사(media narrative)로서의 5·18**

주 재 원 (동의대)

집합 기억의 재현: 매체 서사(media narrative)로서의 5·18

주 재 원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5월 8일은 기억의 날이다. 기억한다는 것은 한 사건을 진심으로 순수하게 기념함으로써, 그것이 자신의 내면 가운데 일부가 되도록 만드는 일이다.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는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이해하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극복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해 눈을 감는 사람은 현재에 대해 맹목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과거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기억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새로운 감염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 1985년 5월 8일 독일 패전기념일을 맞아 서독 연방의회에서 행해진 Richard von Weizsacker의 연설 중 일부

1. 들어가며

기억이란 자신이 경험했던 것, 들었던 것,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이미지 등을 끄집어내는 일련의 행위이다(Hirsch, 1995:13-15). 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기억력은 매우 손상되기 쉽다(Glass, 2007).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의 일부는 지워지고, 강화되고, 왜곡되기도 한다. 이러한 파편화된 사적 기억의 조각들로 공적 기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억들을 이어 붙이기 위한 아교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상상 혹은 망상(imagination)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으로 인해 집단의 기억은 삼시간에 왜곡될 수 있다. 기억은 한 개인의 고유한 경험이기도 하지만,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적 기억도 사회적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알박스(Halbwachs, 1985)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들의 사적인 기억조차도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 만들어지며 따라서 기억은 사회적 맥락에 의해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무엇이 기억할만한 것’이며 어떻게 그것이 기억되는지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집합 기억(collective memory)¹⁾’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이것은 한 집단의 구성원들 간에 서로 공유된 기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Halbwachs, 1985).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사회적 기억’이라 일컫는데, 이러한 사회적 기억은 모든 사람의 일상적 실천(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가운데 형성된다(권귀숙,

1) 알박스의 ‘mémoire collective (collective memory)’라는 용어는 직역 형태인 ‘집합된, 모아진 기억’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서강대 사회학과 김무경 교수나 서양사 연구자 정진성 교수 등은 집단의 정체성으로서 기억의 역할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집단 기억’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고민 끝에 직역 형태에 가까운 ‘집합 기억’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2001).

구술 문화의 쇠퇴로 집합적 기억을 관리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은 미디어가 담당하게 되었다. 미디어의 전통적인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개인의 제한적 기억을 보조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사적 기억을 공적 기억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미디어는 사적인(personalized) 기억의 조각들을 모아서 공공의 기억을 만들어낸다. 과거를 현재로 불러오고 과거의 현재적 의미를 재구성하면서, 대중매체는 과거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역사인식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이동후, 2003). 이것이 바로 미디어의 역사 재현의 기본 원리이다. 실버스톤(Silverstone, 1999)은 이러한 집합 기억을 ‘매개된 기억(mediated memory)’이라 정의한다. 즉 집합 기억은 미디어 생산물의 전제 조건이자 미디어 생산물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기억은 경험의 구성과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은 결코 순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스투켄(Sturken, 1997)은 집합 기억이라는 용어 대신 ‘문화적 기억’이라는 용어를 통해 다큐멘터리, 영화, 텔레비전, 사진 등의 집합 기억을 구성하고 공유하게끔 하는 다양한 미디어들이 집단의 기억이나 전통을 새롭게 상기시키고 재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실버스톤(Silverstone, 1999)의 주장대로 매개된 사회적 기억은 투쟁의 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투쟁의 장은 일상의 미디어를 통해 반복적으로 생산되는데, 각종 미디어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미디어는 집단이 무엇을 기억하고 망각할 것인가에 더욱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한다(이동후, 2003). 특히 오늘날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뉴미디어가 범람하고 있지만, 여전히 텔레비전은 소시민들의 일상에서 집단의 기억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실천 기제로 존재한다(Silverstone, 1994). 텔레비전은 카메라를 통한 진실의 신화(myth)를 만들어내고 ‘의례적 달력(ritual calendar)’에 따라 집합 기억을 구성해가며, 스스로에게 집합 기억을 재구성하는 서사적 역할을 부여하고 정당화한다(Zelizer, 199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매개된 집합 기억을 생산하는 주체로서의 텔레비전 뉴스를 분석하여 오늘날 5.18이 어떤 기억으로 재현되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2. 집합 기억과 역사 그리고 미디어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기억은 과거에 대한 사회적 재구성이다. 알박스에 의하면 기억은 과거사의 자동적인 재생물이 아니라, 마치 방아쇠와도 같은 구실을 하는 외적 자극에 힘입어 되살려진다(Halbwachs, 1985). 여기에서 개입하는 외적 자극의 예로 알박스는 기억 주체와 관계를 맺은 ‘타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지만(김영범, 1999), 오늘날 기억을 되살리는 외적 자극의 역할은 사회문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정의하는 미디어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기억은 문화적 실천행위이자 그 실천에 의한 구성물로 볼 수 있다(김영범, 1998). 집합 기억과 역사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 집합 기억이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되는 경우, 둘째, 기억과 역사가 상호 대립하는 경우,

셋째, 기억과 역사가 상보적 관계인 경우, 넷째, 역사가 집단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 차용하고자 하는 집합 기억과 역사의 관계는 미디어를 통해 재생산된 집합 기억이 역사를 구성하는 첫 번째 형태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알박스가 역사를 인간의 기억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실들의 집성으로 정의한 것과 유사한 접근법이다(Halbwachs, 1980).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은 그것과 관련된 구성원들과 관찰자들에 의해 지각되는데 이 중 일부가 사적 기억으로 저장된다. 그리고 사적 기억의 일부가 모여 역사적 사실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기억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저장된다. 이 수준에서 보면, 기억은 역사를 위한 경험적 소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는 역사로 귀결되는 일방적 관계가 된다.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기억조차 양립 불가능할 정도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합 기억은 객관성의 체로 걸러져야만 한다²⁾(최호근, 2003). 이러한 집합 기억의 주관성과 재구성 가능성은 역사학 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학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집합 기억이 과거의 정보를 저장하는 의미가 아닌 현재의 사회적 맥락에서 재구성되는 행위로 봄으로써 조작되거나 전유되기 쉬우며, 주기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는(Nora, 1989) 집합 기억의 사회적 기능이나 구성적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집합 기억을 과거를 선택적으로 재구성하고 재서술하는 현재의 활동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을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존재하는 하나의 담론(discourse)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동후, 2003).

반면 기억과 역사의 관계에 대해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상충 관계로 보는 입장에서는 기억이 주관적인 의미 부여를 통해 수립되는 정체성과 관계하는데 반해, 역사는 객관적인 사실 관계의 규명과 관련된다고 설명한다(최호근, 2003). 기억이 연속적 계기를 강조하는데 반해 역사는 단절적 국면을 강조한다거나, 기억은 특수성을 지향하는 반면 역사는 보편성을 지향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Halbwachs, 1980). 이러한 논의들을 정리해보면 기억은 민중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반해, 역사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소유된, 일상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다는 것이다(최호근, 2003). 특히 역사 연구에 있어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역사란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사실들을 강조-중속-배제의 원리에 따라 재구성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등장하였다. 즉 역사에 접근하는 것은 객관성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놓고 상충하는 권력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과거를 구성하는 담론 방식일 뿐이라는 것이다(Jenkins, 1991). 특히 역사가 힐버그(Hilberg, 1988)가 아우슈비츠에 대한 예를 통해 기억과 역사에 대해 언급한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는 권력에 의한 민중의 대량 학살과 같은 집합 기억

2) 크리스토퍼 브라우닝(Christopher R. Browning)은 그의 에세이 "German Memory, Judicial Interrogation, and Historical Reconstruction: Writing Perpetrator History from Postwar Testimony"에서 독일의 101경찰대대가 1942년 폴란드의 요제푸프에서 자행한 양민 학살사건에 대한 기록을 살펴본 후, 20년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건 현장에 투입되었던 대대원들 가운데 125명의 기억이 특정 측면과 관련하여 억압되거나 망각되고, 또 상이한 방식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제목을 딴 '라쇼몽 효과(Rashomon effect)'라고 표현하였다.

은 역사로 전환되는 순간 절대적 공포와 무력감이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은 기억될 수는 있지만 역사의 형태로 재현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는데(Hilberg, 1988), 이것은 오늘날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는 역사를 과거 현장에 있었던 민중들의 기억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렇다면 집합 기억은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역사화 되는가? 기억이 역사화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용과 배제의 과정이 개입된다. 수용은 기억된 것에 대한 기억이자 긍정이며, 배제는 기억된 것에 대한 망각이자 부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과 배제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은 사회집단의 가치관과 권력 관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오늘날의 역사는 논증(argument)과 서사(narrative)라는 상반되는 방식에 의해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다. 논증이 역사적 사건을 구조적 인과 관계에 대한 과학적 설명에서 찾는 역사 기술 방법이라면, 서사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억들에 대한 배제가 이루어지며, 이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데올로기에 따른 적극적 망각이라는 반의미화 작용을 통해 그럴 듯한 이야기로 포장된다(최호근, 2003). 따라서 미디어가 재현하는 집합 기억의 역사화와 이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접근은 하나의 정형화된 역사로 만들고자 하는 미디어의 서사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3. 집합 기억의 관행적 재생산

기억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애초에 기대했던 과거의 ‘민주화’가 아니라 과거의 ‘사유화’ 내지 ‘과편화’를 불러오거나, 혹은 정반대로 보수, 복고적 과거정책의 강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억의 과잉은 역사에 대한 신뢰감이 아니라, 오히려 변혁을 도모하는 정책의 퇴조를 나타내는 증표일 뿐’이라는 마이어(Maier, 1993)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나 권력 집단이 기억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며, 때로는 기억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망각의 행위(acts of oblivion)’를 행사하기도 하므로(Burke, 1989) 기억은 하나의 사회정치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집합 기억에 대한 연구의 초점은 기억의 진실성 여부보다 지금 현재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환경에서 재구성되는 과정에 집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생산된 5.18 관련 방송 뉴스를 분석하는 것은 5.18에 대한 현재적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방송미디어의 5.18 관련 서사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첫째, 2000년에서 2013년까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방영된 지상파 3사(KBS, MBC, SBS)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5.18과 관련된 뉴스 콘텐츠가 어떤 관점에서 얼마나 보도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기념일 당일인 5월 18일 저녁 메인 뉴스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뉴스가치를 평가하고 주요 키워드를 분석했고, 세부 보도에 대해서는 담론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5.18에 대한 집합적 기억을 어떻게 서사화된 역사로 재구성하는지를 살펴보았다.

1) 5.18 관련 뉴스 가치 분석

뉴스가치의 중요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 방송 뉴스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것은 방송의 빈도와 순서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존스(Jones, 2008)는 그의 연구에서 뉴스의 빈도가 대중에게 어필하는 가치와 연관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뉴스는 잦은 횟수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방송 뉴스에서 보도 횟수와 더불어 뉴스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뉴스의 배치 순서이다. 신문이 공간의 배치(hierarchy of space)를 통해 뉴스 가치를 평가받는다면 방송 뉴스는 시간의 배치(hierarchy of time)인 뉴스 순서에 의해 평가받는다고 볼 수 있다. 윌리엄스(Williams, 1974)가 지적한 바대로 텔레비전 뉴스는 하나의 흐름(flow)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자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타 매체와는 달리 선상 배열(linear arrangement)로 접근해야 하며 따라서 뉴스의 순서는 가치 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타 매체에 비해 극도로 제한된 방송 뉴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가치가 높은 뉴스일수록 방송 전반부에 배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매년 5월 18일에 방영된 5.18 관련 뉴스가 어떤 가치로 보도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뉴스가치 포인트(newsworthiness point)’ 개념을 차용하였다(Joo, 2012). 과거 뉴스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뉴스의 배치 순서를 분석하는 방법도 사용되었으나, 이것은 전체 뉴스 아이템의 수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전체 20쪽지의 뉴스 중 두 번째에 배치된 뉴스와 전체 40쪽지의 뉴스 중 두 번째에 배치된 뉴스를 동일한 뉴스 가치로 분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뉴스 가치 포인트 산출 공식을 도입하였다.

$$\text{뉴스 가치 포인트} = \frac{\text{해당뉴스의 배치순서}}{\text{전체뉴스아이템의수}}$$

이 산출 공식에 따르면 전체 20쪽지로 구성된 방송 뉴스 중 10번째로 배치된 뉴스 아이템의 뉴스 가치 포인트는 .500이 되고, 40쪽지로 구성된 방송 뉴스에서 10번째로 배치된 뉴스 아이템의 포인트는 .250이 된다. 즉 뉴스 가치 포인트가 0에 가까울수록 뉴스 가치가 높고 반대로 1에 가까울수록 뉴스 가치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공식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의 5.18 관련 뉴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1> 방송사별 / 연도별 뉴스 가치 분석 결과

| | KBS News 9 | MBC 뉴스데스크 | SBS news 8 | 연도별 뉴스 건수 및 뉴스가치 평균 |
|-----------------------------|---|--|---|--|
| 2000 (김대중) *5.18 20주년 | 3건 (.269) -5.18 특별법 조속 제정 -화해, 성숙의 5.18 -5.18 특파원 리포트 영문판 발간 | 4건 (.288) -김대통령 5.18 묘역 국립묘지로 승격 밝혀 -5.18묘역 세계 인권운동가들의 민주 성지로 각인 - 사진으로 5.18 영상 참회록 작성 -5.18과 미국 관계 해제된 기밀문서로도 분석 미흡 | 2건 (.432) -참배객 줄이어 -5.18특별법 제정 | 9건 (.314) * 김대중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5.18 기념식 참석 |
| 2001 (김대중) | 2건 (.141) -5.18 21주년 기념행사 열려 -5.18 진압군 민간인 사살 양심선언 | 3건 (.677) -5.18 민주화운동 21주년 기념식 유족 5월단체 회원 불참 -민주화운동 유공자 보상법, 여야 이견 4년째 미뤄져 -<오월의 시> 등 5.18 민주화운동 기념 공연 잇따라 | 1건 (.316)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 6건 (.438) |
| 2002 (김대중) | 1건 (.428) -5.18 운동 22주년, '넘은 가도 넓은 남아' | 2건 (.465) -광주 망월동 5.18묘지 광주민주화운동 22주년 기념식 - 바필드 5.18 당시 주한미군 상사 진압훈련 증언 | 1건 (.900) -5.18 민주화운동 22주년...추모열기 고조 | 4건 (.565) |
| 2003 (노무현) | 3건 (.303) -'5.18 정신 계승 국민통합' -한총련 시위로 기념 행사 차질 -23년이 지났지만 묘지는 눈물바다 | 3건 (.077) - 한총련 노대통령 굴욕 외교 사과 요구 기습 시위 - 노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치사 -5.18 끝나지 않은 아픔/손금순 행불자 가족 | 2건 (.075) -5.18 기념식, 다양한 추모행사 이어져 -한총련 시위로 5.18 기념식 차질 | 8건 (.161) *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첫 5.18 기념식 참석 |
| 2004 (노무현) | 1건 (.379) -盧 대통령 "지역 분열 넘어 화합·상생의 시대로" | 1건 (.290) -노무현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참배 행렬 | 2건 (.359) -노대통령 "5•18 정신 계승해 분열 극복" -광주 곳곳서 5.18 추모 행사 개최 | 4건 (.347) |
| 2005 (노무현) | 2건 (.150) -盧 대통령, "시민사회 대안 내놓는 참여해야" -25년 지났지만 덮여있는 쟁점들 | 2건 (.056) - 노무현대통령 5.18 승리의 역사 -5.18 묘역 찾은 여야 지도부, 한결같이 5.18 정신의 계승 | 2건 (.056) -노대통령, "대안있는 시민참여 필요" -5•18 끝나지 않은 '진실' | 6건 (.087) |
| 2006 (노무현) | 1건 (.680) -'5•18 정신' 계승해야 | 1건 (.333) -5.18 민주화운동 26주년 기념식 | 1건 (.222) -노대통령 "관용의 문화 만들자" | 3건 (.412) |
| 2007 (노무현) | 3건 (.360) -노대통령 "지역주의 후퇴, 국민이 헤아려달라" -5.18 27주년 기념식 "5월 영령 추모" -노래로 돌아본 '5.18 민주화 운동' 역사 | 2건 (.204) -노무현 대통령 "지역주의 부활" 파문 -5.18 27주년, '남겨진 자들의 슬픔' | 3건 (.109) -노 대통령 "정치권 지역주의 회귀 안된다" -그날의 아픔 되새기며...5.18 엄숙한 추모 -국가기록원, 5.18 관련 문서 일반인에 공개 | 8건 (.228) |
| 2008 (이명박) | 2건 (.375) -이 대통령 "5.18 정신, 통합 에너지로 승화" -5.18 기념행사, '민주주의 축제' 자리매김 | 2건 (.306) -이 대통령 "5.18정신은 국가발전 에너지" -5.18 추모행렬 | 2건 (.075) -이 대통령 "5.18 정신을 국가 발전의 에너지로" -민주영령 추모 발길... 참배객 8만명 '역대 최고' | 6건 (.252) *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첫 5.18 기념식 참석 |

| | | | | |
|------------------------------|--|---|---|--|
| 2009 (이명박) | 1건 (.481)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열려 | 1건 (.517) -5.18 29주년 추모 기념식 열려 | 1건 (.792) -5.18 29주년, 갈등과 무관심 속 빛바랜 기념식 | 3건 (.597) |
| 2010 (이명박) (5.18 30주년) | 2건 (.327)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일부 마찰 -[이슈&뉴스] 5.18 민주화운동 30년, 과제는? | 4건 (.283) -5.18 외교문서 "美, 군 투입 필요성 이해" -신군부, 美에 정치일정 사전 통보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반쪽 진행 -5.18 기념식 서울 행사...빛바랜 추모 | 3건 (.217) -30돌 맞은 5.18...사라진 노래, 들로 나뉜 기념식 -5.18 민심 겨냥 '정치인 총출동'...현 정부 응졸 -다시 찾은 '그 곳'...5.18 경험자들 생채기 '뚜렷' | 9건 (.271) * 5.18 30주년 |
| 2011 (이명박) | 2건 (.315) -5.18 기념식 엄수...“5.18 정신 계승·발전” -1980년 5월의 상처... ‘멈춰버린 삶’ | 1건 (.655) -5.18 광주민주화운동, 31주년 기념식 열려 | 2건 (.700) -5.18 31주년 기념식서 다시 부른 '임 행진곡' -5.18 민주화 운동, 영화·연극 등으로 재조명 | 5건 (.537) |
| 2012 (이명박) | 1건 (.609) -5.18 민주화운동 32주기...국내외 참배객 발걸음 | 1건 (.522) -5.18 광주민주화운동 32주년...희생자 추모행사 | 1건 (.952) -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엄수...2천여명 참석 | 3건 (.694) |
| 2013 (박근혜) | 2건 (.088) -박 대통령 “5.18 정신, 국민 통합으로 승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로 빛바랜 기념식 | 2건 (.425) -차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는 5년만에 5.18 기념식 참석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따로따로 5.18 기념식 | 3건 (.263) -박 대통령 “5.18 정신 국민통합으로 승화돼야”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논란...반쪽 기념식 -민주화가 왕따라는 뜻?...역사 교육 부실 | 7건 (.259) *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5.18 기념식 참석 *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논란 |
| 방송사별 평균 | 26건 (.316) * 대통령 관련 뉴스 9건 (.052) | 29건 (.337) * 대통령 관련 뉴스 8건 (.063) | 26건 (.313) * 대통령 관련 뉴스 6건 (.045) | |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5월 18일에 지상파 방송 3사에서 보도된 5.18 관련 뉴스의 뉴스 가치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뉴스가치 포인트의 평균값은 방송 3사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KBS(.316), MBC(.337), SBS(.313)). 그러나 연도별/정권별로 특정 사안에 대한 방송사별 뉴스가치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 정부 마지막 3년간 5.18 관련 뉴스에 대해 지상파 3사 중 가장 높은 뉴스가치를 부여했던 KBS는 참여정부 5년간 단 한 번도 뉴스가치 최고점을 차지한 적이 없을 정도로 5.18과 5.18 관련 행사에 대해 낮은 뉴스가치를 부여했다. 특히 2004년 12번째, 2005년 5번째, 2006년 18번째 등의 뉴스 배치는 타 방송사와 비교했을 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2006년에는 독일월드컵 관련 <‘다혈질’ 앙리, 밀착 수비로 괴롭혀라>, <‘파워 엔진’ 박지성 합류 늦어지나>, <초•중•고생, 키 줄고 체력 저하> 등과 같은 뉴스들보다 낮은 가치로 평가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여부나 중대 발언 여부가 5.18 관련 뉴스의 가치를 좌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했던 2000년을 비롯해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5.18 기념일에는 평

균적으로 뉴스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권 출범 이후 첫 행사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보다는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과 담화 자체에 뉴스 가치를 두는 한국의 언론 관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방송사별로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사 참석에 초점을 맞춘 뉴스는 KBS 9건(33%), MBC 8건(28%), SBS 6건(22%)로 5.18 관련 전체 뉴스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뉴스 가치는 3사 각 .052, .063, .045로 대부분 톱뉴스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를 단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에만 5.18 기념식에 참석했을 뿐 이후 4년간은 불참했다. 유일하게 5.18 기념식에 참석했던 2008년 당시 방송 3사 평균 .252의 뉴스가치 포인트를 기록한 반면, 이듬해인 2009년에는 각 방송사가 1건씩의 단신으로만 처리하여 .537의 포인트를 나타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5.18 30주년을 맞이했던 2010년에는 일시적으로 .271로 상승하였지만 이후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537과 .694로 5.18 관련 뉴스가 단신 수준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5.18 관련 뉴스의 가치 포인트는 급격히 상승하여 평균 .259를 기록하였고, 특히 KBS는 .088을 기록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라기보다 새로운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여부와 담화문 등에 초점을 맞추는 권력 지향적 보도 행태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임기 말까지 5.18 기념식에 참석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마지막이었던 2007년의 뉴스가치는 3사 평균 .228로 임기 첫해였던 2003년의 .161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임기 말 5.18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던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뉴스의 수와 가치가 급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2002년 4건, .565), 이명박 (2012년 3건, .694)).

5.18 기념식에 대통령 참석 여부, 담화문의 정치적 쟁점화 여부, 기타 예상치 못한 사건의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뉴스 가치가 평가된다는 것은 5.18이라는 집합 기억이 방송 매체를 통해 내러티브적으로 역사화 되는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요소들 - 특히 정치적 요소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는 역사로서의 5.18을 재구성하고 재생산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특히 5.18 관련 뉴스의 뉴스 가치가 명백히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2000년 이후 5월 한 달 동안 생산된 관련 뉴스의 보도 횟수로도 확인할 수 있다. SBS는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2건과 1건의 관련 뉴스만을 보도했으며, 그마저도 뉴스 후반부에 단신으로 처리했다. MBC 역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건과 2건의 관련 뉴스만을 보도했으며, KBS도 2012년에 단 1건의 5.18 관련 뉴스만을 보도함으로써 이명박 정부 이후 5.18에 대한 방송 3사의 뉴스가치 인식이 급속도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5.18 관련 뉴스에 대한 담론 분석

관행적 보도와 박제화된 5.18

지상파 3사와 종편 채널 3사의 5.18 관련 뉴스들을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매년 5월 중에 보도된 5.18 관련 뉴스들을 모두 분석해 보았다. 5.18 관련 뉴스 담론 생산 메커니즘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할 부분은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5.18에 대한 지상파 방송 3사의 보도 행태가 매우 관행화(routinized)되어 5.18의 역사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방송 3사의 5.18 관련 뉴스는 ‘행사’와 ‘기념식’에 집중했는데, 이들 뉴스는 놀라우리만치 흡사했고 심지어 매년 거의 동일한 멘트가 사용되기도 했다. 5.18 전야제를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이 비교해볼 수 있다.

<표 2> 방송사별 5.18 전야제 보도 내러티브

| | KBS | MBC | SBS |
|--------|---|---|--|
| 앵커 | 5.18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29주년을 맞습니다.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지금 광주 금남로에는 5.18 정신을 되새기는 전야제가 한창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최혜진 기자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26주년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 금남로에서는 지금 전야제 행사가 한창인데요.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철홍 기자. | 내일(18일)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일입니다. 오늘 5.18 묘역에는 하루 종일 참배 행렬이 줄을 이었고 지금은 전야제가 한창입니다. 광주 방송 이계혁 기자입니다. |
| 현장 기자 | 네, 저는 광주 금남로 5.18민주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 광주 금남로에 나와 있습니다. | |
| 앵커 | 추모 열기가 아주 뜨거워 보이는군요? | 지금 시간이면 전야제 열기가 대단하겠군요. | |
| 현장 기자 | 네, 그렇습니다. 80년 5월 민주화의 열망으로 가득했던 이곳 광주시 금남로 일대는 오늘도 추모 열기가 뜨겁습니다. 5시간 넘게 펼쳐지고 있는 전야제 행사는 이제 어울림 한마당으로 그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저녁 6시부터 시작된 5.18 26주년 전야제 행사는 밤 9시를 넘기면서 절정으로 치달고 있습니다. 지금은 5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진혼 행사가 막을 내리고 26년 전 5월 항쟁을 그대로 재현한 재현마당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27년 전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졌던 광주 금남로가 시민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전야제 본 행사는 5월 영령을 위로하는 시민들의 힘찬 함성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
| 시민 인터뷰 | 조승현(대학생): 퍼포먼스 보면서 대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관심 가져야겠다는 생각... | 김양수(시민): 참여해야지, 참여해야지. 광주시민이라면 전부 참여해야지. | 장경숙(시민): 시민군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줬던 것을 체험하기 위해 저희가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
| 현장 기자 |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인 내일은 5월 영령들의 넋이 잠든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 내일 국립 5.18묘지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5.18 26주기 기념식이 열립니다. | 내일 오전 이곳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7주년 5.18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
| 클로징 멘트 | 지금까지 5.18 29주년 전야제가 열리고 있는 광주시 금남로에서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 지금까지 광주에서 MBC 뉴스 김철홍입니다. | 지금까지 광주에서 KBC 뉴스 이계혁입니다. |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방송 3사가 5.18 전야제를 보도하는 태도는 매우 정형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튜디오 앵커가 광주 현장의 중계차를 연결하고 그곳에서 현장의 기자는 거의 흡사한 내용의 스크립트를 읽는다. 이후 미리 섭외한 현장의 시민과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사전에 녹화를 해둔 시민과의 인터뷰를 내보내고 마지막으로 다음날 열리는 5.18 기념식에 대한 소개를 한 뒤 클로징 멘트로 마무리한다. 이 과정에서 5.18 전야제는 연례적으로 열리는 문화행사로 정형화되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방송사들은 ‘광주’, ‘지역’, ‘지역민’, ‘시민’, ‘기념식’ 등과 같은 키워드를 빈번하게 생산하면서 마치 5.18이 광주 지역민들만의 기념행사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광주’라는 지역명칭은 지난 14년간 KBS에서 76회, MBC에서 53회, SBS에서 92회 언급되었고, ‘지역’이라는 용어도 각 19회(KBS), 8회(MBC), 24회(SBS) 생산되었는데, 이것은 같은 기간 ‘민주주의’ 라는 용어가 각 18회(KBS), 10회(MBC), 25회(SBS) 언급된 것과 비교된다.

5.18에 대한 관행적 뉴스 생산 행태는 방송 구성의 정형성뿐만 아니라 1차적 게이트키퍼라 할 수 있는 일선 기자들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03년과 2004년 5월 17일 5.18 전야제 KBS 뉴스 스크립트를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한 단어의 배열로 구성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KBS News 9, 2003. 5. 17)

23년 전 그 현장, 전남도청 앞 광장과 금남로 일원에서는 지금 그 날을 기념하는 전야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촛불서약식과 평화서약식 등을 통해 후세대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네 번째 마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야제는 특히 (차량시위 재현과 주먹밥 먹기 등) 전국에서 온 참배객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5.18정신과 상황을 체험하며 되새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News 9, 2004. 5. 17)

24년 전 현장 그곳,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는 지금 평화와 연대를 주제로 그날의 녀을 기리는 전야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5번째 마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전야제는 전국에서 온 참배객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5.18정신을 되새기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러한 뉴스 담론의 생산은 뉴스 제작 관행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담론 생산의 메커니즘 속에서 뉴스 콘텐츠는 개별적 뉴스 보도로 한정되지 않고 뉴스 제작 관행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Tuchman, 1978; van Dijk, 1988). 특히 지상파 방송의 경우 주간(weekly), 월간(monthly)으로 다루어지는 뉴스가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중 하나는 생소한 사회 현상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뉴스 생산 관행에 맞추어 보도되는 뉴스 생산의 ‘관례화(routinization)’이다 (Harrison, 2000). 뉴

스 제작에 있어서 관행은 ‘패턴화된, 관례화된, 반복적인 일의 연장이며 매체 종사자들이 일할 때 사용하는 형식’이라고 정의된다(Shoemaker & Reese, 1996: 105). 이러한 관습들은 뉴스 제작 조직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험을 최소화하고, 조직레벨에서 기자들을 비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발달되어왔다(Shoemaker & Vos, 2009). 게다가 관행은 주요 뉴스 항목 선정과 그러한 뉴스 보도를 담당하는 뉴스제작자/게이트키퍼들 사이에 적용되는 공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Hirsch, 1977).

사실 뉴스 기관과 뉴스 제작자들은 뉴스로 만들어내야 할 압도적인 양의 사건들과 정보들을 맞닥뜨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행은 엄청난 분량의 뉴스 선별 과정에 드는 노력을 절감해준다. 하지만 관행적인 뉴스 제작 환경에서는 질이 낮은 뉴스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골딩에 의하면 관습은 뉴스 판단의 임무를 단순화시키는데, 더욱 접근이 용이하며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쉽고 그 자체로도 보도할 수 있는 사건들은 관례적으로 ‘news story’라고 불린다(Golding, 1981: 75). 터크만은 ‘전형화(typification)’라는 작업이 “원재료가 기자/뉴스 기관에 의해 정제되는 것처럼 사건의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Tuchman, 1997: 188). 기자들이 거대한 양의 정보를 빠르고 관습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종의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뉴스 제작 관행의 정형화는 뉴스의 질적 하락을 야기하며, 뉴스에 대한 가치 판단과 제작의 임무를 단순화시킬 뿐만 아니라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을 확대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Golding, 1981).

집합기억이 매체 서사를 통해 역사화되는 과정에서의 정형화는 결국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5.18을 ‘과거’, ‘당사자’ 중심이 아닌 ‘현재’, ‘생산자’ 중심으로 재생산하는 과정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기념식이나 전야제와 같은 ‘행사’ 중심의 뉴스 보도가 5.18 관련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은 5.18에 대한 치열한 진실 규명이나 잊혀진 기억의 복원에 집중해야 할 언론이 기념행사에만 초점을 맞추어 기념일의 정신은 전시장의 박제처럼 전시만 하는 소위 ‘기념일 저널리즘(Anniversary Journalism)’(Kitch, 2002)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겠다. 기념일 저널리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적 사건의 본질은 망각하고 행사 자체만 기억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역사 왜곡 혹은 반역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일상 매체로서의 텔레비전 뉴스는 집합기억을 통해 역사를 재구성함에 있어서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과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을 뒤섞어 놓았고 이러한 우선순위를 역사적 관점이 아닌 당대 정치권력에 의해 평가받고자 하는 듯하다. 관례화되어 매너리즘에 빠진 기념일 저널리즘은 매년 중계차를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보도하던 5.18 전야제마저도 축소 보도하거나 아예 보도를 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³⁾.

3) KBS는 2012년과 2013년 5.18 전야제 관련 뉴스를 광주 지역 뉴스에서만 보도했고, SBS 역시 2011년 이후 관련 뉴스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 MBC도 2008년과 2009년에는 전야제 관련 뉴스를 단신으로 처리하다가

재구성된 5.18 - 여전히 시민은 없다.

5.18은 암울했던 한국의 근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된다. 5.18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시민들이었고, 그들의 가족들이었다. 역사로서의 5.18은 이들의 집합기억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따라서 언론이 5.18을 재구성함에 있어서 이들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5.18에 대한 역사적 재검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00년 이후에도 여전히 5.18 관련 뉴스에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기념일 저널리즘은 현재의 정치권력과 그들이 참석하는 행사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5.18의 의미와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전혀 무관심하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5월 한 달 동안 보도된 5.18 관련 뉴스는 KBS 52건, MBC 58건, SBS 59건이었는데, 이 중 5.18 피해자들과 그들의 삶에 초점을 맞춘 보도는 KBS 3건, MBC 2건, SBS 3건으로 총 8건으로 전체 뉴스의 4.7%에 불과했다⁴⁾. 보도량이 극히 적은 것도 문제점이지만 이들에 대한 뉴스의 내용 역시 지적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논증과 서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집합기억을 구성하는 한 축을 피해자들의 서사라 한다면 이를 통해 하나의 뉴스를 완성하는 또 다른 축은 기자들의 취재를 통한 논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다룬 뉴스에는 서사만이 존재할 뿐 이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나 새로운 정보와 같은 논증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들을 잃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극대화된 클로즈업으로 재현하고, 시청자들의 눈물을 짜내기 위해 뉴스에 슬픈 BGM(배경음악)까지 사용한다. 이러한 뉴스의 경향은 최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도하는 한국의 방송 뉴스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감성으로 포장된 서사적 뉴스는 시청자들의 감정적 동요는 이끌어낼지 몰라도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만한 과급력을 갖지는 못한다 (Bogart, 1980). 보가트(Bogart, 1980)에 의하면 이러한 텔레비전 뉴스는 일종의 드라마 장르와 같이 재미와 스타일,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전통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감성적 뉴스 보도가 오히려 시청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주요 사안이나 사건, 비극 등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감각의 과부하'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5.18 관련 보도를 함에 있어 방송 3사는 공히 자신들의 논조를 가지기보다는 당시 정권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도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의 기념식 연설이나 5.18 관련 발언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가한 적이 없다. 그저 권력자들의 입만 쳐다보고 그대로 뉴스에 옮기는 식의 보도가 이어져오고 있다. 흥

2012년부터 전국 단위로는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4) MBC - 5.18 끝나지 않은 아픔/손금순 행복자 가족 (2003. 5. 18), 5.18 27주년, '남겨진 자들의 슬픔' (2007. 5. 18)

KBS - 5.18 아물지 않는 상처 22년째 (2002. 5. 17), 23년이 지났지만 묘지는 눈물바다 (2003. 5. 18)

25년 지났지만 덮여있는 쟁점들 (2005. 5. 18)

SBS - 5.18 25주년 '아물지 않는 상처' (2005. 5. 16), 5·18 끝나지 않은 '진실' (2005. 5. 18), 다시 찾은 '그 곳'...5.18 경험자들 생채기 '뚜렷' (2010. 5. 18)

미로운 점은 5.18 관련 뉴스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방송사별로 각 56회(KBS), 48회(MBC), 60회(SBS)의 빈도로 등장했는데, 이는 ‘기념식’과 ‘광주’라는 용어 다음으로 빈번하게 언급된 키워드였다. 반면 5.18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설명하는 용어인 ‘상처’, ‘눈물’, ‘아픔’과 같은 단어들은 각 9회(KBS), 7회(MBC), 4회(SBS) 등으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뉴스에서 생산되는 5.18 정신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진다. 김대중 정부 당시 5.18 정신은 ‘민주화’, ‘대화합’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역주의 극복’, ‘용서와 화해’ 등으로 설명이 가능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 발전 에너지로 승화’, ‘미래의 발전’으로 핵심 의미가 바뀌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 대통합’으로 그 의미가 정의되고 있다. 5.18 정신을 설명하는 핵심 가치의 변화는 결국 해당 정권의 주요 관심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떤 배경에서 왜 이러한 의미가 강조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보도는 단 한 건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앞서 언급한 바와 연계하여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방송의 보도 행태는 기득권 세력이 5.18에 대한 집합 기억을 국가 정체성과 자신들의 지지 기반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나가며

한국 전쟁 이후 가장 비극적인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5.18이 올해로 34주년을 맞이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인식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5.18과 관련된 뉴스의 양적, 질적 결핍이 아닌 34년 전 권력의 총칼 앞에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했던 언론이 민주주의라는 기치 아래에서도 여전히 권력의 입만 바라보고 그들의 정치적 담화를 마치 5.18의 정신인양 포장해서 생산하고 있는 한국 언론의 민낯이다. 그들은 피해자와 중재자, 때로는 심판자의 정체성을 오가며 파편화된 5.18의 집합기억을 긁어모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5.18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 가깝다. 이것은 5.18 당시 적극적인 왜곡 보도나 침묵으로 정치권력에 동조했던 언론의 암울한 역사를 통해 입증된다. 비판적 집단기억을 강조했던 하버마스(Habermas)는 가해자로서의 독일국민들이 쓰러린 집단 기억을 상기함으로써 보편주의적 헌법 원칙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정상성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Buruma, 2002). 예컨대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이 5.18의 피해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가해자 집단이나 그들의 후손들이 가해자의 집단 기억을 끄집어내어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바로 이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에만 피해자에 대한 애도를 할 수 있으며⁵⁾,

5) 애도(Trauer)라는 개념은 프로이트 학파의 일원인 미칠리히(Mitscherlich)를 통해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직시함으로써 그 과거를 극복한다는 의미의 ‘애도의 작업(Trauerarbeit)’으로 발전하였다(Wagner, 1995: 최호근, 2003에서 재인용)

책임의 인정과 함께 물질적 배상 및 보상, 재발 방지의 약속과 용서를 구하는 자세는 이러한 동일시 과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최호근, 2003). 따라서 미디어를 통한 집합 기억의 진정한 역사적 재구성과 그것을 통한 용서와 화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가해자로서의 미디어가 가해자로서의 기억을 가감 없이 끄집어내어 그것과 동일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치는 역사에 대해 우위를 차지한다. 게다가 역사적 사실들은 지금 우리에게 부닥쳐오는 것이 된다. 그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이 기억이 하는 일이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기억을 통한 역사의 재구성은 결국 정치적 자각의 행위로 수렴한다는 것이다. (Benjamin, 1989; 최성만, 2013에서 재인용) 따라서 향후 5.18 관련 후속 연구는 이러한 기본 전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내재화된 권력관계의 수용과 그것을 통한 자기검열, 그리고 역사의식의 부재와 현장과는 동떨어진 보도 관행 등 이 모든 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집합 기억을 구성하는 매체 서사의 구성요소들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SBS의 5.18 관련 보도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비극적인 역사를 잊어버리면 언젠가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 2010년 5월 17일 <SBS 8시 뉴스>, 5.18 민주화운동을 목격했던 미국인 데이비드 돌린저 씨와의 인터뷰 中

참고문헌

- 강철수, 윤석년 (2010) 5.18 30주년 언론보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0권 4호, 5-39.
- 권귀숙 (2001) 제주 4.3의 사회적 기억. <한국사회학> 제 35집 5호, 199-231.
- 김영범 (1998) 집합기억의 사회사적 지평과 동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사회사연구의 이론과 실제>. 157-211.
- 김영범 (1999)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기억사회학 연구. <대구대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6호. 557-594.
- 윤영태 (2009) 5.18과 신문보도: 5.18 관련 신문 기사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언론정보학회 쟁점세미나: 5.18과 언론. 2009년 9월 25일.
- 이동후 (2003) 국가주의 집합기억의 재생산 - 일본 역사 교과서 파동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1권 2호. 72-110.
- 최성만 (2013) 벤야민에서 기억과 집단적 무의식. <현대사상> 제11호, 2013. 4, 39-65.
- 최호근 (2003) 집단기억과 역사. <역사교육> 제85집, 159-189.
- Buruma, I. (2002)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 정용환 역. 서울: 한겨레신문사
- Glass, D.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Memory and Imagination.
<http://indianapublicmedia.org/amomentofscience/the-relationship-between-memory-and-imagination/>
- Golding, P. (1981) 'The Missing Dimensions: News Media and the Management of Social Change'. In E. Katz and T. Szecsko (eds.) Mass Media and Social Change. Beverly Hills, CA: Sage, 63 - 81.
- Halbwachs, M. (1980) The Collective memory. translated by F. Ditter, et al. New York: Harper & Row.
- Halbwachs, M. (1992) On Collective memory. translated by L. Cos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rrison, J. (2000) Terrestrial TV News in Britain: The Culture of Production.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Hilberg, R. (1988) 'I was not there'. Berel Lang (ed.), Writing and the Holocaust. New York.
- Hirsch, M. (1977) 'Occupational,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Models in Mass Media Research: Toward an Integrated Framework'. In M. Hirsch, V. Miller and G. Kline (eds.) Strategies for Communication Research. Beverly Hills, CA: Sage.
- Jenkins, K. (1991) Rethinking History. 최용찬 역 (1999)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서울: 혜안.
- Joo, J. (2012)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discrimination: the representation of ethnic diversity in the Korean public service broadcasting news. Doctoral Thesis.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Kitch, C. (2002) Anniversary Journalism, Collective Memory and Cultural Authority to tell the Story of the American Past. Journal of Popular Culture, vol. 36-1, 44-67.
- Maier, C. (1993) 'A Surfeit of Memory', History and Memory. Studies in the Representation of the

Past 5, p.150.

- Shoemaker, P. & Reese, S.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2nd ed.). White Plains, N.Y.: Longman.
- Shoemaker, P. and Vos, P. (2009). *Gatekeeping Theory*. New York: Routledge.
- Silverstone, R. (1994) *Television and Everyday Life*. London: Routledge.
- Silverstone, R. (1999) *Why Study the Media?*. London: Sage. 김세은 역 (2009)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London: The Free Press.
- Tuchman, G. (1997) 'Making news by doing work: Routinizing the unexpected'. In D. Berkowitz (ed.) *Social Meanings of News*. Thousand Oaks, CA: Sage, 173 - 192.
- van Dijk, T. (1988) *News As Discours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Zelizer, B. (1992) *Covering the body: The Kennedy assassination, the media and the shaping of collective mem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주제발표 2 |

**사이버공론장에서의 5·18 담론과 그 변화
: 일베저장소를 중심으로**

정근식 (서울대)

김학준 (서울대)

사이버공론장에서의 5·18담론과 그 변화: 일베저장소를 중심으로

정근식
김학준

1. 문제제기

2013년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카운터 펀치'가 날아온 해로 기록될 것이다. 1995년 특별법 제정에 의해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 책임자 처벌 등이 이루어지고, 이후 5.18묘지의 국립화와 국가기념일 지정 등이 이루어지면서, 5.18은 한국 민주주의 '성스러운 사건'으로 제도화되었지만, 33년이 흐르면서, '민주화의 세례'를 받고 자라난 세대들에 의하여 5.18이 희화화되는 참혹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희생자들의 시신을 '홍어'에 빗대 조롱하는가 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어떤 언론에서는 탈북자의 증언이라며 5.18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500명이나 투입됐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유포되었고, 사이버 공간에서는 '5.18'이 호남인들의 '폭동'이었다는 주장이 맹렬한 기세로 퍼져나갔다.

이런 당혹스러운 주장과 5.18에 대한 폄훼가 활발하게 벌어진 곳이 바로 2012년 이후 한국 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문제적인 사이트로 지적되는, 일간베스트 저장소(www.ilbe.com, 이하 일베)이다. 일베는 5.18 수정주의 담론을 만들고 유포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터넷 사이트이다. 이들이 내뿜는 강렬한 언어적 폭력성과 민주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언사와 행태들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무능력한 '루저'들의 불만 표출이라고 간주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이를 한국형 파시즘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지만,¹⁾ 이런 단순한 평가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한, 조금은 차분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사회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왜 '진보'적이라 믿어져 왔던 젊은 세대들이 이런 폭력적이며 비역사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는가를 성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현재를 파악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일베 현상은 왜 발생하고 있는가? 이들은 어떤 사회적 권위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극단적일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 또한 이들은 5.18 폄훼 게시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이들에 대해 공감하기를 거부하

1) 이러한 의견은 특히 진보언론을 주축으로 한 분석기사에서 주로 나타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참고하라. "온라인 극우파 결집코드는 '혐오'", <주간경향>, 2012년 6월 19일, "일베 회원들, 애정결핍에 열등감 많은 비겁자", <한국일보>, 2013년 5월 28일

며 도리어 당시 진압부대원들의 고초와 활동을 정국 '안정'과 국난 극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이들은 진보주의자들은 물론이고, 전통적 보수주의자들과도 다른 요소를 지니고 있다. 한때 사이버 공론장에서 열세에 놓였던 보수진영에서 일베를 '애국 청년'들이라고 환영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들도 일베의 이러한 행태가 보수 우익의 '품격'을 훼손시킨다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즉 일베는 좌우를 막론하고 '문제적'인 사이트인 것이다.

일베 현상을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공론장의 구조변동과 5.18담론의 내용전환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질문해야 하고, 일베의 형성 과정을 인터넷 문화의 변동과 연결지을 필요가 있다. 일베를 일관된 정치적 이념이나 당파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오늘날 한국사회에 팽배한 후기자본주의적 주체화 양식으로 볼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1980년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5.18담론의 변화과정을 간략히 개관하고, 사이버 문화의 역사적 맥락에서 일베가 어떠한 전통을 '계승'했는지를 확인한 뒤, 특히 5.18과 관련된 논의가 자주 이루어진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글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베에서의 5.18 수정주의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진정한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 5.18의 제도화와 그 그림자

1) 5.18담론의 전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언론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송정민의 말처럼 “사회가 광주항쟁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민중적 저항운동으로 평가하든 간에, 그 인식과 평가의 기초는 언론의 보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송정민, 1997)다. 따라서 5.18담론의 변화과정은 1980년 5월 이후 광주 민주화운동을 프레임짓는 언론의 기사를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의 프레임이 사회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보도통제로 악명높은 제 5공화국 시기의 언론은 각종 왜곡과 조작을 통해 광주 '폭동'론을 퍼뜨려 5.18을 지역화시키려는 군부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했다.

김희송은 5.18항쟁시기 군부의 5.18담론을 연구한 글에서 기존의 연구가 군부의 물리적 폭압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체계모니적 지배의 차원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최근 발굴된 5.18 당시의 상황일지를 분석하여 “5.18담론 형성과정에서의 군행위자들의 의도와 역할, 담론과 행위간의 상호 관계 등 군부담론의 콘텐츠를 파악”(김희송, 2013:8)했다. 그에 따르면 ‘폭도들에 의한 광주소요사태’가 항쟁시기 군부의 5.18에 대

한 평가를 집약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이다. 김희송은 1980년 5월 20일까지도 시위주체에 대한 호명이 시위군중과 과격분자, 무장폭도 등으로 혼재되다가 5월 21일 계엄사령관 담화문에서 ‘폭도’로 규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호명과정은 군부 내에서조차 광주 항쟁에 대한 이해가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항쟁의 시위주체를 폭도로 규정하면서 군부는 폭도담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실을 은폐하고, 인과관계를 조작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결정적으로 군부는 언론에 5.18의 실상과는 반대되는 보도문을 제공함으로써, 당시 광주항쟁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지역에 “군부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면서 군부담론이 헤게모니를 획득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김희송, 같은 글:27)을 조성했다. 이러한 정당화전략이 신군부 집권기에 광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5.18을 폭동으로 이해하게 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전재호(1999)는 1980년 이후 1998년까지의 5.18담론의 전개과정을 네 국면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국면은 국가가 5.18담론을 독점한 80년부터 83년까지, 두 번째 국면은 5.18을 둘러싼 국가와 민주화 세력 간의 담론투쟁이 벌어진 84년부터 87년 사이, 세 번째 국면은 87년 6월항쟁 이후 5.18의 정당성이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그 실천과 계승 담론이 우위를 점해가기 시작한 92년까지, 마지막 국면은 5.18 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정통성을 민주화운동에 둔 김영삼 정권 시기이다. 마지막 국면에서야 비로소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공식적 국가 담론의 위상을 획득했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신문기사에서 광주항쟁을 지칭하는 용어가 시기마다 달라지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허윤철 등(2012)은 5.18을 다룬 동아일보의 기사와 사설 5,342건을 분석한 논문에서 각 시기마다 5.18을 호명하는 용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했다. 이들에 따르면, 1980년부터 유화국면이 시작된 1983년까지는 신군부가 호명한 ‘광주사태’가 지배적이었고, 1984년 대학가에서 열렸던 5.18행사를 언급하며 광주항쟁, 광주의거와 같은 대항담론이 처음 나타났고, 1988년 이후부터는 ‘항쟁’이라는 호명으로 대표될 수 있는 대항담론이 자주 사용됐다. 현재 자주 사용되는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은 노태우 정권 시기에 등장하며, 1989년 이후부터는 5.18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자리잡았다.

정일준(2004)은 5.18을 둘러싼 정당성과 헤게모니를 둘러싼 역동적 담론투쟁을 검토하면서, 1980년부터 87년 까지를 국가에 의한 독점 및 침묵의 시기로, 88년부터 95년을 민중항쟁으로서의 5.18담론 부활의 시기로, 그 이후를 5.18담론의 국가화 시기로 규정했다. 그는 특히 “5.18담론이 “국가승인을 받은 후부터 이제까지의 저항담론에서 권력담론의 일부로 위치가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5.18의 비판적 계승을 어렵게 한다. 그는 “5.18을 ‘민주화운동’이라 부르건 ‘민중항쟁’ 또는 나아가 더 급진적인 어떤 이름을 지어 부르건 간에 바로 그러한 호명 자체가 5.18담론을 둘러싼 이견을 역견으로 내몰고 또 억압한다”고 지적한다. 정일준의 이러한 분석은 사이버공간, 특히 일베에서 벌어지는 5.18수정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서 5.18은 6월 항쟁과 더불어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한 상징이

되었고, 정일준의 지적대로 5.18이 국가적으로 공인된 담론이 되자 그것을 부정하는 담론은 억견으로 몰려 공론장에서 점차 퇴출된 것처럼 보였다. 특히 1995년 5.18특별법에 의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가 완료된 이후, 5.18은 국가적 성스러움(알렉산더, 2007; 뒤르켐, 1992)의 요소를 획득하였고,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함께 5.18에 관한 새로운 상상력은 금기시되었다.

하지만 국가주도의 성역화나 국가기념일화는 커다란 딜레마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이는 특히 1997년 망월동 묘지의 성역화 사업논쟁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미 1981년부터 “집합적 죽음의 장소”이며 “영원한 부활의 장소로서 한국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생명의 공간”(정근식, 1997:196)이었던 망월동 묘역을 국가권력을 활용하여 성역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생명력을 상실한 채 ‘박제화’될 우려가 발생하였다. 결정적으로 5.18 묘지를 국립묘지화 하려는 과정에서 망월동 묘지가 갖고 있던 운동적 성스러움은 권위적 성스러움으로 전환되고, 피해당사자의 이익과 시민들의 의견은 괴리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5월 문제에 관한 5월 단체의 배타적 영향력 행사”와 같은 내부 민주주의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국가주도성과 희생 당사자주의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5.18성역화 문제는 ‘5월 광주’가 표상하는 창조적인 에너지의 재생산을 억제하고, 특정 지역을 ‘고립’시킬 수 있는 위험을 배태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일베 이용자들이 5.18에 가지고 있는 큰 불만, 다시 말해 민주담론의 독점의 문제를 촉발시킨다.

2) 사이버공론장에서의 5.18 수정주의의 형성

5.18 국가담론의 공고화 과정이 한국에서 막 정보화 혁명이 진행되고 사이버 공론장이 태동하던 시기였다는 점을 우리가 잊을 수 없다. 구자순(2008)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이루어진 한국 사이버공간에 대한 연구는 총 82건의 분석 대상 중 사이버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2000년대 초반 연구들은 시민 저널리즘의 일상화와 같은 사이버 공간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하버마스의 공론장 모델은 많은 연구자들의 의존한 이론적 틀이었고, 공론장이 사이버 공간에서 구현된다는 유토피아적 전망도 자주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 우려 섞인 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개똥녀’사건이나 악성댓글과 같은 사이버 폭력이 일상화되고, 사이버 민주주의라는 이상주의적 전망과는 다르게 비합리적인 논의가 폭증하면서, 인터넷이 공공적이며 이상적 담론상황을 제공할 것이라는 시각은 상당부분 기각되었다.

장우영(2006)은 한국 사이버공간의 정치적 이념지형을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PC통신을 기반으로 하던 1998년 이후의 정초기와 2000년 월드와이드웹이 보편화된 이후 2005년까지의 인터넷 기반 확장기에는 진보주의자들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었다. 최태섭(2012)이 지적하듯이 판지일보와 안티조선, 그리고 논객들의 시대였던 2002년에서 2004년을 지나 촛불집회로 대표되는 2008년까지, 한국 사이버 공론장의 주된 이념적 지형은 상당부분 진

보에 가까웠다. 즉 오프라인 공론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론장에서의 5.18담론 역시 ‘정설’로서의 민주화운동론과 ‘이설’로서의 민주항쟁론이, 혼재되어있을지언정, ‘80년 광주’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²⁾

그러나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뉴라이트와 같은 보수진영이 사이버공간에 진입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2008년 촛불집회는 한국 사이버공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예컨대 인터넷 카페인 노노데모에서는 “촛불시위에 대한 카운터 담론이 조야하나마 만들어지는 한편, 팩트와 의심가는 진술들이 뒤섞인 형태로 시위대의 ‘폭력성’에 대한 고발이 줄을 이었다(최태섭, 2012:61).” 이러한 변화는 2009년 미네르바 사건과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거치며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제 진보를 자임하는 이들은 보수에 의해 ‘점령’되었다고 믿어지는 ‘네이버’에 댓글을 쓰는 이들을 ‘알바’로 취급하고,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좌파좀비’들이 선동에 놀아나는 ‘다음’ 아고리언들을 냉소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한때 완전히 사라졌거나 소수 ‘수구꼴통’들이나 믿는다고 여겨지던 왜곡된 5.18담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인터넷 공론장에서 벌어지는 5.18부정론은 많은 점에서 해외의 혐오발화 연구와 접점이 있다. 우선 거론할 수 있는 것이 홀로코스트 ‘부인denial’, 혹은 수정주의자들³⁾의 주장이다. 마이클 셔머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홀로코스트 수정주의자들은 첫째, 인종을 기초로 한 집단 학살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 둘째, 가스실과 소각로를 사용한 고도로 기술적이고 잘 짜인 말살 계획이 수행되었다는 점, 셋째, 500~600만의 유대인이 사망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셔머, 2007:349).

- i) 유대인절멸을 위한 단일한 마스터플랜은 없기 때문에 홀로코스트는 없었다.ii) 아우슈비츠나 여타 수용소에는 대량 살상을 위한 가스실이 없었다. iii) 집단살해를 증명할 객관적인 문서가 없기 때문에 홀로코스트 연구자들은 생존자의 증언에 의존한다. iv) 1941년부터 1945년 사이에 유대인 인구의 감소는 없었다. v) 뉘른베르크 법정은 유대인의 이익을 위해 차린 광대극이다(이재승, 2013).

홀로코스트 수정주의자들은 이런 주장을 인터넷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시키고 있다. 이들은 세계 역사의 배후에 유대인이 있고, 이들은 각국의 정부는 물론 언론,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으며, 홀로코스트가 그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 내지는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Fogo-Schensul, 1998).

각국의 극단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정의로운 선의의 피해자로 여기며, 가해자들은 일종의

2)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2007년~2013년 사이에 정치면에서 가장 많은 댓글을 받은 20개의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면 2010년 이전까지는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댓글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이들을 향한 네티즌들의 답변들이다: “지역분열 조장하는 간첩은 물러가라”

3) 본래적 의미에서 홀로코스트 수정론과 부정론은 상이하지만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모호하다. 특히 서구의 경우 부정론자들은 처벌하지만 수정론은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데, 많은 경우 실질적으로 부정론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스스로는 수정론이라 일컫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서도 수정론과 부정론을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엘리트 혹은 특권계층이라고 주장한다. 이때의 가해자들은 보편적인 역사에서 말하는 소수자나 희생자들이다. 일베에서도 현실의 소수자들이나 희생자들을 오히려 특권 향수자라고 전도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는 민주화가 진전되거나 역사의 희생자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보상받았을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일 수 있다. 비판과 청산의 대상이 분명했던 민주화의 시기가 지나면, 이른바 포스트 민주주의의 위기가 발생한다. 더구나 세계화를 추동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이 극도의 경쟁에서 발생하는 불안에 직면하게 되면서, 많은 시민들, 특히 포스트 민주화 세대들은 사회통합을 위하여 소수자들에게 베풀었던 다양한 조치들을 ‘역차별’이라는 이유로 거두어들일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트’는 역설적으로 그 사회의 가장 바깥 언저리에 위치하는 이들이 된다(Rydgren, 2007; Kay and Meddaugh, 2009).

이와 비슷하게 한국에서도 과거의 민주화 운동, 특히 5.18에 대한 부정론이 부상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홀로코스트와는 달리,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처벌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18부정론이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김보경(2013)은 5.18 민주화운동 부인을 가해자 측의 부정과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의 부정으로 나눈다. 가해자들은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진술의 회피, 문자적 부인, 그리고 해석적 부인기법으로서의 책임의 부인, 완곡어법 및 범형식주의, 함축적 부인기법으로서의 안보의 필요성, 피해자 존재의 부인을 많이 사용하였다(김보경, 2013:36).” 그렇다면, 이들의 지지자들의 5.18부인 논리는 무엇인가? 이들은 문자적 부인, 다시 말해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전략을 자주 사용하고, 또 5.18 특별법을 부정한다. 이들은 사건 자체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해자들의 수는 물론 북한과의 연관성을 의심한다. 5.18부정론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들 수 있는 이가 지만원이다. 그는 그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5.18부정론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다가 유가족 단체의 거센 반발을 받고 고소당했는데, 2012년 말 대법원은 특정대상을 지칭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5.18부정론은 초기에는 ‘지만원’이나 ‘역사학도’ ‘조갑제’ 등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부정론이 확산되다 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m, 이하 디시), 그리고 현재의 일베로 이어져 최근의 논란을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렇다면 가해자들을 지지하는 이들의 5.18부정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김보경은 같은 글에서 과거청산 부인의 원인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인정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즉 개발주의 시대가 만들어낸 ‘국민’의 정체성에 자신을 투영하던 이들이 그것이 해체되고 폐기됨에 따라 자신의 “사회적 가치가 부정되는 ‘무시’”(김보경, 같은 글:55)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잃어버린 사회적 인정을 되찾기 위해 과거청산을 부인한다는 것이다. 김보경의 주장은 개발국가가 만들어낸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체화한 이들에게는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일베를 이용하는 젊은 층의 5.18부정론을 이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일베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특징을 찾기란 쉽지 않지만, 상기한 랭키닷컴의

통계나 일베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고려해볼 때, 일베의 주 이용자들은 1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젊은 층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유추할 수 있다. 김보경도 언급하고 있듯이 과거 청산 부인의 시점이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에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일베 이용자들이 5.18부정론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할 수 있어도 이들이 기존의 5.18 수정주의자들과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 공론장에서의 5.18담론의 변화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 | 항쟁 담론 | 폭동 담론 |
|----------|---|--------------------------------------|
| 오프라인 공론장 | 1988-1998 대항담론으로서의 민중항쟁론의 재조명 및 5.18의 국가적 승인 | 1980-1987 군부 및 보수언론에 의한 폭동담론의 공식화 |
| 사이버 공론장 | 1999-2007 5.18 항쟁 담론의 공고화 | 2008-2014 인터넷을 중심으로 5.18수정주의 유포 |

<표 4> 한국 공론장에서의 5.18담론의 변화과정

일베에서 이루어지는 5.18 수정주의 담론과 반 호남 지역주의 담론은 전적으로 사이버 공론장의 변화과정을 반영한다고만은 할 수 없다. 한국 사이버 문화의 발전과정에서 일베가 차지하는 위상과 함께, ‘홍어택배’와 같은 참담한 게시물과 그에 대한 열광이 나타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자.

3. 일베와 사이버공간의 문화적 맥락

1) 일베의 형성

디시인사이드에서의 배태와 분화

오늘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바와는 달리, 2000년대 초반의 디시인사이드는 어느 사이버 커뮤니티와 다르지 않은 진보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정치사회 갤러리(이하 정사갤)은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제 2의 노사모라고 불릴 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강했으며, 반 한나라당 성향이 짙었던 갤러리였다. 하지만 2004년, 이러한 경향은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진보를 표방하던 정사갤 이용자들이 당시 공적으로 여기

던 한나라당의 전여욱 의원과 오프라인에서의 토론대결을 펼쳤는데, 자신만만하던 정사깬 이용자들은 전 의원의 능란한 답변과 사실에 근거한 반론에 제대로 된 반격도 해보지 못한 채 완패를 당하였다. 이 사건은 사이버 세계에서 이른바 ‘여욱대첩’으로 오랫동안 회자되었으며, 이는 ‘키보드워리어’라는 말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언급될 정도로, 사이버 공간에서 커다란 과급력을 낳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사깬에서 진보적 목소리는 급격히 위축한 반면 우파들의 목소리는 크게 신장되었고, 이는 정사깬의 이후 정체성을 결정지었다. ‘입진보’들의 무능과 ‘선동’으로 대표되는 감정적이고 무비판적인 자파 옹호에 대한 환멸, 그리고 그들을 사실(즉, ‘fact’)을 기반으로 침묵시켰다는 쾌감이 정사깬을 보수일변도의 커뮤니티로 환골탈태시킨 것이다.

하지만 정사깬의 의미를 단순히 우파 네티즌들이 집결한 최초의 장소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오늘날 일베로 대표되는 사이버 보수주의의 이데올로기와 행위지침을 마련한 이데올로그였다. 예컨대 2008년의 촛불집회는 ‘촛불 변질론’과 ‘촛불 피로증’, 그리고 무엇보다 ‘광우병’이라는 말이 표상하듯이, 정사깬에서 만들어낸 어휘들은 “허위 사실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좌파”에 대한 혐오를 강화시키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디시 특유의 전쟁의례에 적극적으로 동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의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갤러리를 공격하여 초토화시킬 정도의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와우 갤러리(이하 ‘와깬’)와 야구 갤러리(이하 ‘야깬’) 등의 역대 거대 갤러리들 역시 보수적 목소리에 의해 점령되었다. 물론 여전히 많은 디시 이용자들은 정사깬을 소수의 ‘수꼴’로 취급하며 그들의 과격한 주장과 표현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을 ‘정사충’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디시의 보수화는 멈출 수 없는 경향으로 자리잡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정사깬에서 시작된 디시의 보수화는 근본적으로 디시의 ‘일간 베스트’게시물을 ‘저장’하던 일베의 정치적 성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비하의 일상적 의례화

일베를 문제시하는 다양한 시선 중 하나는 고인에 대한 과도한 모독이다. 예컨대 앞서 언급된 ‘홍어택배’ 사건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에 코알라를 합성한 ‘노알라’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망자에 대한 비하는 비단 일베에서만 독특하게 행해진 것은 아니다. 이미 디시의 코미디 프로그램 갤러리(이하 ‘코깬’)에서는 2008년 가수 터틀맨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그의 사인과 예명을 연관지어 고인드립의 시초를 열었고, 배우 최진실씨가 자살하자 코깬에서는 누구보다 ‘창의적’인 고인드립을 만들어내려는 경쟁이 이루어졌다. 고인드립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과 곧 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망을 계기로 절정을 이루었다. 이후 유족들의 수많은 고소-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드립은 특히 코깬과 야깬을 중심으로 전염병처럼 퍼졌다.

드립의 역사에서 야깬은 대단히 특수한 위치를 점유한다고 할 수 있다. 코깬이 고인드립의 시작을 알렸다면, 야깬은 고인드립과 함께 패드립이나 특히 정사깬에서 유래한 지역

드립처럼, 현재 일베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언어표현들을 총체적으로 구현한 최초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야갤에서 유래한 드립용법의 특수성은 코갤의 고인드립이 비교적 ‘웃긴다’는 목적의식에 한정된 것에 반해, 야갤은 자신의 발화한 드립이 조준하는 타자(혹은 적)가 분명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야갤이 근본적으로 8개 구단(2014년 현재 9개 구단)팬들로 나누어져 반년이 넘는 시간동안 거의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는 경기에 관련된 갤러리가기 때문에 피아가 분명하다는데서 연유하는 특징이다. 야갤의 고인드립은 자주 특정 지역(그리고 팀)을 겨냥한 지역드립과 연관되는데, 그중 가장 심각한 훼손의 대상이 된 지역이 호남이다. 2008년 3월 내연녀와 그 자제를 살해하고 자살한 전 해태타이거즈 야구선수 이호성을 희화화하는 ‘호성드립’을 필두로, 2009년 KIA타이거즈의 우승 이후 타이거즈 팬들에 대한 반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망과 맞물려 ‘홍어드립’으로 수렴했다. 하지만 이러한 드립의 대상이 된 것이 호남만은 아니어서, 경기중 심장부정맥으로 수년간 식물인간으로 지내다 끝내 2010년 사망한 전 롯데자이언츠 포수 김수혁 선수를 두고 ‘야채’라고 표현한다거나,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인간)통구이에 빚댄 ‘통구이드립’이 ‘홍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각 지역을 비하하는 드립으로 정착했다.

따라서 현재 일베에서 보듯이 드립에 있어서 적대적 타자를 전제하는 방식은 상당부분 야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드립의 경우는 애초부터 특정 지역을 (특히 전통적인 지역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비하하려는 의도보다도 상대방에 대한 자극 자체에 더 방점이 찍힌 행위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일베에서의 드립이 실제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과는 별개로 이러한 패륜적이며 반인륜적인 언술을 보며 인상을 찡그리기보다는 웃음을 터뜨리는 일베 이용자들을 이해할만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드립이 특히 호남을 타겟으로 한 범야권에 대한 비하로까지 선회한 것은, 정사갤의 영향이 적지 않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인터넷 문화의 자율성이 만들어낸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운영자의 편집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패드립과 지역드립이 일반화되자 디시 측에서는 그동안 있어왔던 관리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시물을 예고 없이 삭제했다. 특히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게시물, 즉 ‘일간베스트’ 게시물은 음란물 등 적절치 못한 내용을 담은 경우가 많았다. 디시 측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갤러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작품’이자 그 노력을 인정받은 게시물이 삭제되는 사태에 분노하는 한편, ‘주옥같은’ 게시물들이 삭제되기 전에 저장해놓을 만 한 대피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일베의 직접적인 기원이다. 2007년 무렵 <일베 개러지ilbegarage>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최초의 일베는 트래픽 과부하나 운영자 입대로 인한 사이트 폐쇄 등의 부침을 겪은 뒤 2011년 현재의 모습으로 리뉴얼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베의 탄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디시 갤러리 관리자의 게시물 삭제였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관리자에 의한 탄압경험은 일베이용자로 하여금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

치로 여기게 했을 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과도한 언어표현으로 인해 곤란을 겪었을 사이트 운영자까지도 ‘일베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즉, 민주화시키지 않는다)고 공언하며 게시물들에 대한 거의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는 전통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베 이용자들의 집착은 상술한 각종 드립을 표현의 자유로 옹호하며 더욱 극단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일베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을 비난하는 핵심 논리가 되었다.

2) 독특한 언어규칙의 확립

일베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과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시에서 일베로 넘어오는 역사적 맥락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겨난 각종 어휘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다. 우리는 앞서 디시에서 파생된 여러 ‘드립’들을 살펴보았다. 이때 ‘드립’이란 ‘애드리브ad-lib’를 줄인 신조어인데, 애드리브는 원래 정해진 원고나 대본에 의존하지 않고 상황적 특색에 맞춰 배우가 즉흥적으로 표현하여 극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을 뜻한다. ‘드립’은 한국 사이버스페이스의 맥락에서 중요한 유머코드로 변용된다. 애초의 용법은 TV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허무하고 알팍한 ‘개같은 애드립’을 비난할 때 쓰이던 ‘개드립’에서 출발했다. 이 신조어의 출처는 디시 코깰인데, 애초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개드립’은 코깰러들 사이에서 상당한 재치 및 풍자를 보여주는 이들에게 보내는 찬사로 바뀌었고, 이러한 용법이 사이버상에서 대중화되어 ‘드립’이라는 말이 유행어로 정착되었다.⁴⁾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드립’은 일종의 접미사가 되어 유머의 소재에 ‘드립’을 접합하는 방식으로 신조어들을 쏟아냈다. 그 중 일부가 앞서 살펴본 ‘지역드립’이며 ‘패드립’과 같은 용례로 나타난다.

하지만 ‘드립’이라는 말이 지시하는 바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드립’은 화자의 발언이 애초에 계획되지 않았음을 전제한다. 만약 화자의 발언이 ‘드립’으로 규정된다면(‘드립’이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대화상황의 리듬을 극대화하기 위해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한 재치였다고 할 수 있는 만큼) 화자의 발언에서 책임성을 증발시킨다. 즉 자신이 한 말은 전혀 무게감이나 진심이 담기지 않은 ‘개드립’에 불과했다는 변명이 가능한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의 드립, 예컨대 지역드립이 일반화될 경우, 이것은 자주 자신이 ‘친’ 드립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게 한다.

한편 ‘어그로’란 영어 aggravation의 속어 aggro에서 비롯된 말인데, 원래는 온라인게임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였다. 온라인게임은 각 캐릭터의 능력이 특징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 마법 등의 스킬에 따라 분업화된 하나의 파티(party)를 구성하여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높은 레벨의 몬스터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파티원 중 체력 및 방어력 수치가 높은 사람(흔히 탱커라 부른다)이 몬스터들의 이목을 끌며 공격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그로를 끈다’고 한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의 담화상황에서 ‘어그로’는 또 다른 의미를 획득

4) <http://rigvedawiki.net/r1/wiki.php/%EA%B0%9C%EB%93%9C%EB%A6%BD>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주는 부정적 감정에 의한 주의집중상태로 변용된다⁵⁾. 어그로를 자주 끄는 사람을 통칭 ‘어그로꾼’이라 부르는데, 이들은 자주 격렬한 비난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점차 인정을 받고 흔한 일이 되자, 어그로꾼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변화했다. 어그로를 고의로 끄는 이들이 구사하는 다양한 전략은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기도 하고, 그들이 펼치는 기만과 자극에 넘어가지 않도록(즉, 낚이지 않도록)구성원들을 각성시키기도 한다. 요컨대 어그로꾼들의 목적은 ‘욕을 많이 먹는 것’에 있고, 많은 모욕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전략이 성공했다는 것, 즉 많은 이들이 그가 던진 ‘떡밥’을 물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던진 떡밥이 건드리는 것은 어그로의 대상들이 공유하는 성스러운 것, 혹은 금기이다. 이러한 행태는 일베를 포함한 여러 커뮤니티사이트에서도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들 커뮤니티사이트에서 존댓말 등이 사라지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드립과 어그로의 중요성은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는데 있다기보다는 그런 표현들이 성스러운 것을 부정하고 해체한다는데 있다. 유머와 풍자의 본질이 그러하듯 드립은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일베 이용자들은 성스러운 것을 파괴하는 쾌감을 통해 그들의 감정적 에너지(emotional energy, 콜린스, 2009)를 고양시킨다. 가장 패륜적인 드립조차 받아들여지며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베에서, 오늘날 한국사회의 그 어느 것도 그들의 비난과 비웃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드립과 어그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통틀어 ‘X선비’(또는 ‘선비’)라고 부른다. 이때 ‘선비’란 모두가 인정하며 즐기는 ‘막장’스러운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질타하는 규범주의자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말이다. 일베 이용자들에게 ‘선비’들은 일베의 분위기를 ‘알면서도’ 어그로를 끌기 위해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보다 많은 비난을 받으며 희화화의 대상이 된다. 때문에 이들이 보기에 ‘선비’들은 커뮤니티의 분위기와 지배적인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난독증 환자’들의 집단인 것이다. 이 말이 자주 진보세력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무기력하고 한심하며 잘난 척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때문에 ‘선비’는 종종 ‘훈장’이 되기도 한다. 도덕과 지식을 근거로 사람들을 계도하려고 하는 이들을 부르는 이 말은, 근본적으로 ‘누구나 병신’인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을 도덕적으로 ‘가르친다’는 점에서 선비보다도 더 심한 반감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아무도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훈계할 자격이 없는 절대적 평등주의,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을 거스르지 말라는 일종의 ‘소탈함’은 일베를 이해하는 중요한 행위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팩트’fact이다. 일베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팩트’는 일베 이용자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어휘이다. ‘팩트’의 강조는 ‘일베는 확인된 사실에 의거하여 합리적 비판을 한다’는 ‘일부심’(일베를 한다는 자부심)의 핵심적 요소이다. 일베 이용자들은 그들의 주장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것은 자주 오유와 같은 ‘좌썸’들이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어서 잘 선동 당한다는 주장과 깊은 연관이 있으면서도(감성팔이), 자신들의 감정적 표현을 강화시키며 지목당한 이를 비난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이때 선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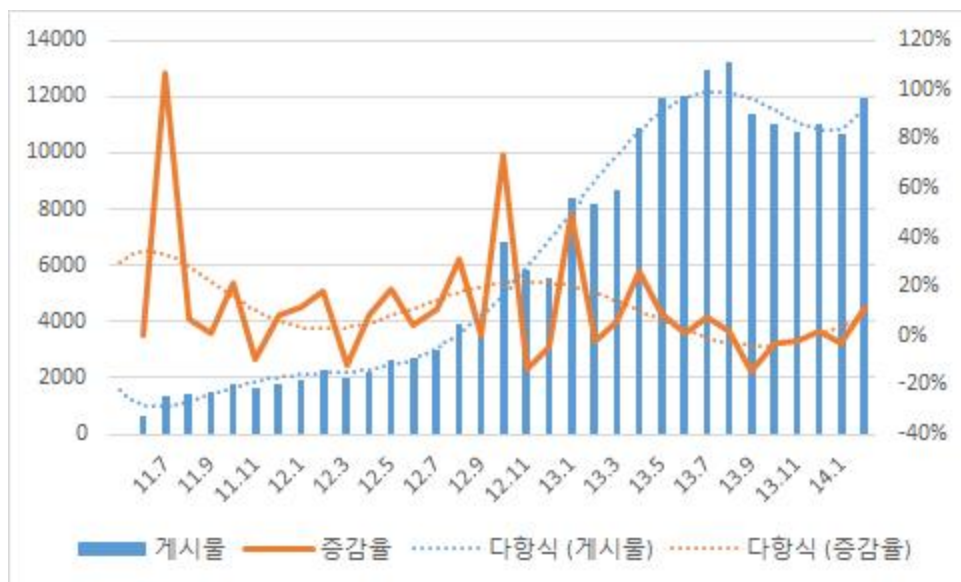
5) <http://rigvedawiki.net/r1/wiki.php/%EC%96%B4%EA%B7%B8%EB%A1%9C>

어그로꾼들이 허위의 사실을 조작해내어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행위와 자주 비교되며, 스스로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하는 일베 이용자들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일베 이용자들이 보기에 이 ‘감성팔이’에 잘 ‘선동’당하고 ‘წყ이 는’ 이들 대부분은 ‘선비’이며 이들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일베는 사이버공간의 수많은 전통과 맥락, 의미들이 얽히고 설키며 만들어진 한 극단이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일베는 가장 극단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장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이 문제시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가 부여해준 권리를 무기로 민주주의를 비난한다는 역설적 상황에 있으며, 드립과 어그로로 대표되는 일베의 극단적 행태는 웹사이트로서의 일베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보다도 그 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처한 시대적·사회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3) 일베의 성장과 현황

2011년 5월 28일부터 활동을 재개한 일베는 조금씩 영향력을 확장시켜나갔다. 이제 일베는 디시의 문화적 생산물을 일방적으로 소비하던 과거와는 달리 일베 이용자들만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방에 퍼뜨림으로써 한국 사이버공간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일베의 양적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인증대란’이다. 인증대란이란 일베이용자들을 무식하고 덜떨어진 ‘찌질이·루저’들로 보던 일반 네티즌들의 인식을 뒤집기 위해 자신들도 ‘승리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학벌이나 직업을 ‘인증’한 사건이다.



<그림 17> 일반 일간베스트 게시판의 월별 증가와 그 추이

그 과정에서 몇몇 조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인증대란은 500여 명(2012년 10월 23

일 오전 9시 기준)에 이르는 일베 이용자들의 ‘일밍아웃’⁶⁾을 이끌어냈다. 그 중 상당수는 스스로를 SKY로 대표되는 국내 우수대학 및 의치학 계열의 학생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는 삽시간에 많은 수의 ‘일베로’를 얻으며 일베 이용자들의 열광적 호응을 얻어냈다. 위 그래프에서도 드러나듯, 인증대란은 일베 이용자들이 지지하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보다 많은 일베 게시물을 생산해냈다. 게시물의 증가율 역시 일베 설립 초기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는 점(73%)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일베를 추동하는 핵심적인 동력은 ‘우파’적 이데올로기라기 보다는 인정투쟁(호네트, 2012)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상이 승리했을 때보다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인증대란이후 일베는 한국의 사이버공간은 물론 언론과 정치계에서도 주목하는 문제의 사이트가 되었다. 특히 대선정국과 관련하여 일베는 논란의 핵심에 위치했고 야당에서는 일베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급기야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을 직접 겨냥하며 수많은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일베는 대선 과정에서 친여 성향의 네티즌들이 집결한 ‘보수의 메카’ 혹은 ‘21세기 서북청년단’⁷⁾이 되어 그들의 말과 생각을 사방에 퍼나르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행위자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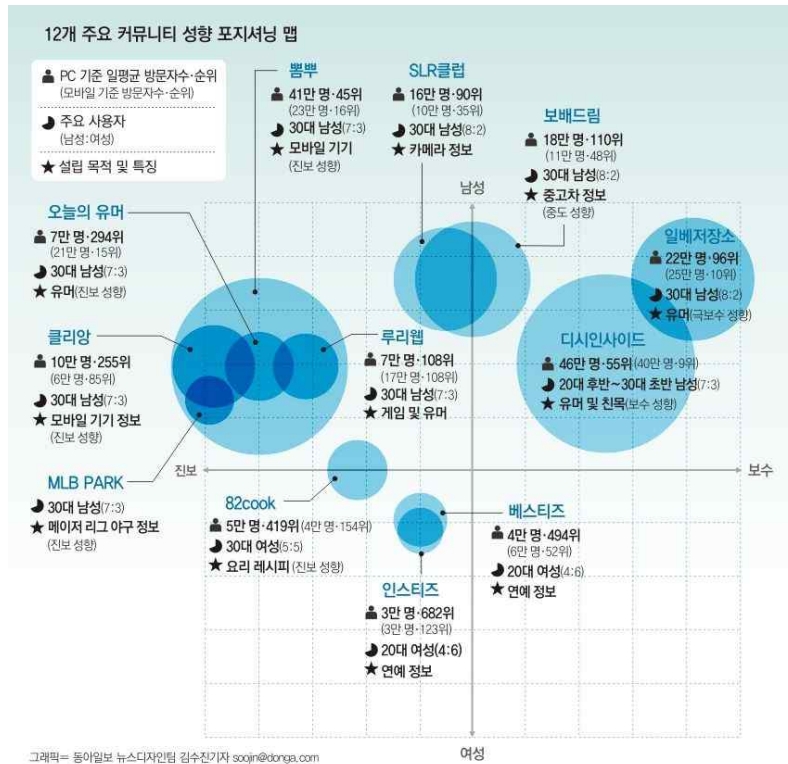
4. 5.18 폼훼의 구조와 사례

일베가 사이버 공간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인터넷 컨설팅업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베의 일일 방문자 숫자는 디시와 네이트 판에 이은 3위였기에 그 영향력은 분명 무시할 바가 못되지만⁸⁾ 일베의 반대 층위에 ‘오늘의 유머’나 ‘루리웹’등의 ‘진보성향’ 커뮤니티 역시 존재한다. <그림 2>가 ‘MLB파크’와 같은 커뮤니티를 ‘진보’로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한국 사이버공간의 분화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사이버 공론장에서의 5.18수정주의’가 사이버공간 전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6) ‘~밍아웃’은 커밍아웃에서 비롯되어 ‘드립’과 마찬가지로 접미사가 되어 신조어를 양산한다. ‘일밍아웃’도 자신이 일베를 사용한다는 것을 커밍아웃한다는 의미였고, 같은 방식으로 홍밍아웃은 ‘홍어’임을 커밍아웃한다는 뜻을 말한다. 스스로 여성임을 밝히는 ‘보밍아웃’이나 열지팬임을 드러내는 ‘엘밍아웃’역시 같은 조어법으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이는 다시 ‘~밍’과 같이 축약되기도 한다.

7) “‘일베’를 생각한다”, <시사in>, 2013년 5월 21일

8) “디시, 아고라 대신 일베, 뽐뿌가 대세”, <매경이코노미>, 제 1721호



<그림 18> 12개 주요 커뮤니티의 포지셔닝 맵
 출처 : “왜 국정원은 오유에 댓글을 올렸을까”, <동아일보>, 2013년 5월 10일

1) LDA분석을 통해 본 5.18 담론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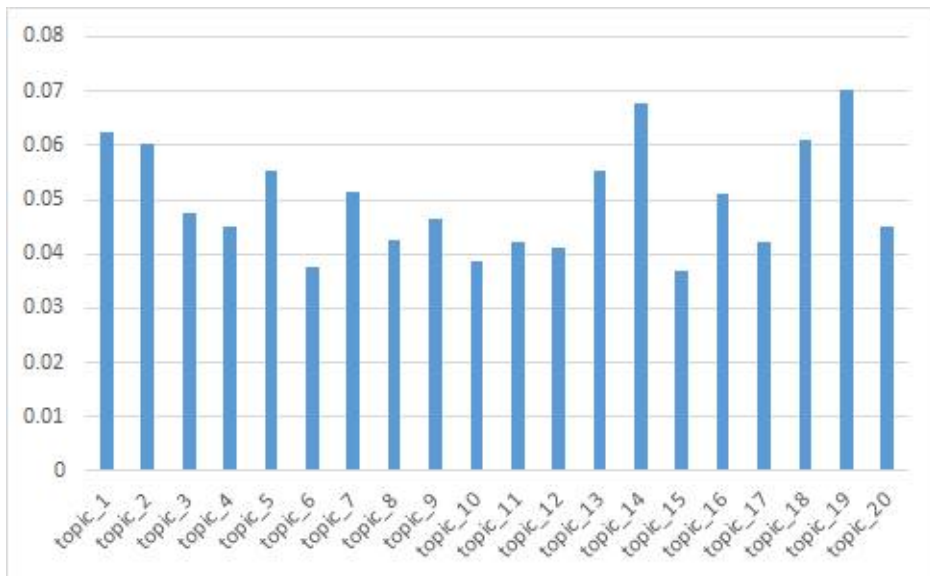
우리는 본 연구를 위해 2011년 6월 1일 0시부터 2014년 2월 28일 24시 까지 정치일베에 오른 모든 게시물(총 102,116개)을 수집한 후 확률적 토픽 모델링(probabilistic topic modeling) 기법 중 하나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로 분석했다.⁹⁾ LDA는 하나의 토픽은 특정 단어들의 집합이고, 각각의 문서는 다양한 단어가 묻혀진 토픽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단어는 하나의 토픽에서 나온다고 가정한다.(Blei, 2012) 이 기법은 한 문서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데, 특히 최근과 같이 SNS 등 인터넷 담론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베만을 분석하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된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분석틀을 제작해 분석에 반영하였다. 분석방법의 특성상 지정된 텍스트에서 함께 사용된 단어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LDA는 일베의 개념적 지도를 그리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치 일간베스트에 게재된 게시물의 주제를 20개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각각의 10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토픽은 다음과 같이 범주화할 수 있다.

9) 위와 같은 기법은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컴퓨터전파통신공학과 이정현(박사수료)님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 토픽 번호 | 카테고리 | 토픽 번호 | 카테고리 |
|-------|-------------|-------|-----------|
| 1 | 정치 | 11 | 보수논객 및 토론 |
| 2 | 좌파 및 호남 | 12 | '저격10' |
| 3 | 독재 찬양 | 13 | 국정원 |
| 4 | 토건중심 개발주의 | 14 | 욕설 및 비하 |
| 5 | 북한 | 15 | 교육 |
| 6 | 부정부패 | 16 | 지칭어 |
| 7 | 국제정세 및 대북관계 | 17 | 선동 |
| 8 | 5.18 | 18 | '일베' |
| 9 | 언론 | 19 | 이념 |
| 10 | 사건 사고 | 20 | 서울시 |

<표 5> 정치 일베 게시판의 토픽의 범주화

이렇게 분석된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들의 전체 토픽의 평균분포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9>전체 정치 일간 베스트 게시물들의 토픽분포

정치 일베에 등극한 글들의 전체 토픽은 토픽 1(0.07276), 토픽 19(0.07064), 토픽 14(0.06685), 토픽 13(0.06396), 토픽 18(0.06007)이 특히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었고, 각각의 토픽을 구성하는 상위 20개 단어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0) 이때 저격이란 특징인을 '팩트'에 근거해서 비판하거나 반박한다는 의미이다. 가장 유명한 일베의 '저격'으로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대선 TV광고에 나온 의자가 수 백만원에 호가하는 제품임을 밝혀 '서민이미지'를 내세운 문 전 후보를 비난한 것이 있다.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저격 역시 일베 이용자들이 열광하는 중요한 의례인데,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근거로 공고한 권력(자)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주는 쾌감을 주는 '저격'은 기실 2000년대 초반 판지일보나 2012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나는 꿈수다'등에서 볼 수 있듯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한국의 사이버문화와 정치 의례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 토픽1 | 토픽13 | 토픽14 | 토픽18 | 토픽19 |
|------|------|-------|------------|------|
| 정치 | 국정원 | 욕설 비하 | 지칭어 | 이념 |
| 민주 | 국정 | 새끼 | 일베 | 사람 |
| 박근혜 | 진짜 | 민국 | 생각 | 박원순 |
| 후보 | 병신 | 교과서 | 국민 | 지원 |
| 의원 | 채동욱 | 빨갱이 | 우리 | 정치 |
| 새누리당 | 경찰 | 개새끼 | 보수 | 문제 |
| 대선 | 검사 | 니들 | 댓글 | 사회 |
| 문재인 | 사실 | 시발 | 인터넷 | 대한 |
| 대통령 | 의혹 | 지랄 | 좌좀 | 민국 |
| 안철수 | 혐의 | 흥어 | 팩트 | 자신 |
| 대표 | 주장 | 생각 | 산업 | 자기 |
| 국민 | 증거 | 지들 | 게이 | 좌파 |
| 선거 | 조사 | 자기 | 오유 | 자유 |
| 통합 | 직원 | 박근혜 | 분탕 | 이유 |
| 국회 | 민주 | 민족당 | 자료 | 민주주의 |
| 당선 | 내용 | 개소리 | 게시판 | 사실 |
| 정치 | 댓글 | 전라 | 일베 이용자들 | 사람들 |
| 지지율 | 원장 | 쓰레기 | 정치 | 보수 |
| 국회의원 | 공개 | 인간 | 생각 | 나라 |
| 발언 | 판결 | 북괴 | 우파 | 인간 |
| 야당 | 총장 | 좌빨 | 좌빨 | 이야기 |

<표 6> 주요 5개 토픽 단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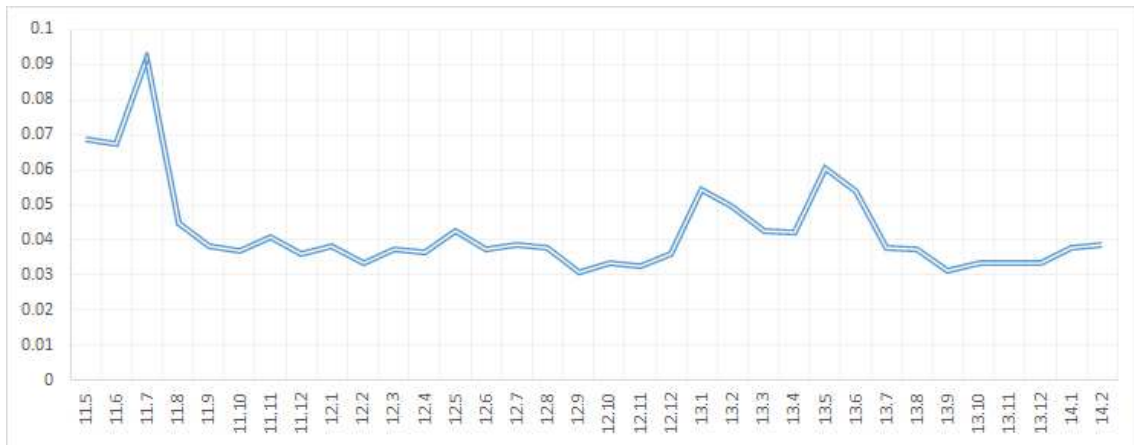
한편 5.18 역시 정치 일베게시판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주제였는데, 토픽 8을 구성하는 상위 100개 단어 중 노이즈를 제거한 93개의 단어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광주 | 시위대 | 공수부대 | 남한 | 장갑 | 투입 | 육군 |
| 방송 | 경찰 | 학생 | 개입 | 저항 | 훈련 | 체포 |
| 언론 | 사건 | 광주시민 | 습격 | 전투 | 확인 | 전라 |
| 뉴스 | 계엄군 | 유공자 | 차량 | 영화 | 땅굴 | |
| 운동 | 부대 | 지만원 | 도청 | 사격 | 지휘 | |
| 사람 | 진압 | 사망 | 발생 | 간첩 | 학살 | |
| 전두환 | 사태 | 군인 | 진실 | 정도 | 병사 | |
| 광주사태 | 폭도 | 유언비어 | 사람들 | 기록 | 이후 | |
| 북한군 | 역사 | 명령 | 광주폭동 | 반란 | 정부 | |
| 사실 | 작전 | 지역 | 내용 | 정보 | 하나 | |
| 우리 | 국군 | 주장 | 최규하 | 무기고 | 시체 | |
| 시위 | 상황 | 공격 | 장교 | 서울 | 대대 | |
| 증언 | 무장 | 총기 | 사망자 | 대장 | 조감제 | |
| 무기 | 침투 | 시작 | 사진 | 시간 | 자료 | |
| 김대중 | 탈취 | 북괴 | 병력 | 전국 | 군대 | |

<표 7> 토픽 8 단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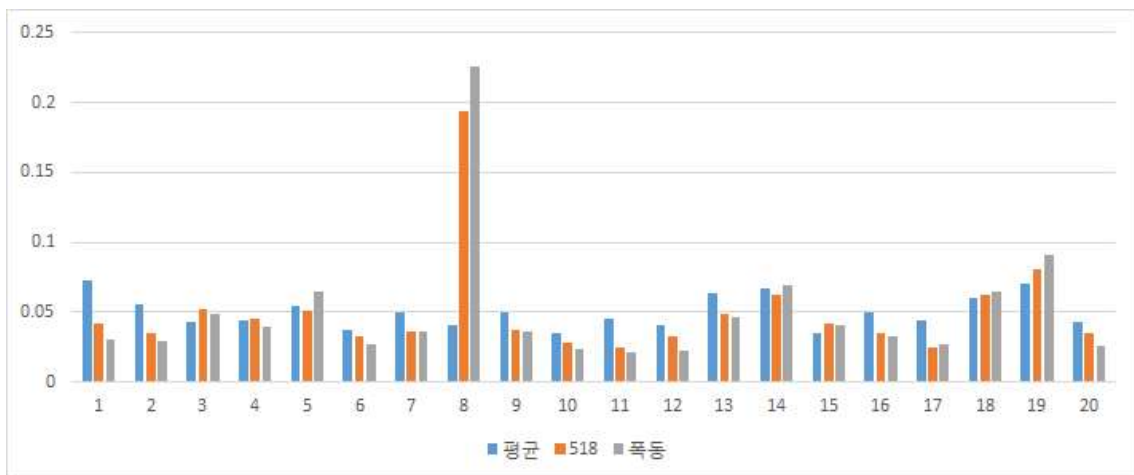
LDA모델의 특성상 전체 토픽의 평균은 0.05인데 토픽 8의 평균 토픽 분포는 0.04037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치 일베의 특성상 특정 정치이벤트에 따라 일베 내에서 교환되는 메시지 역시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토픽 8의 ‘평균’보다도 특정 시기에 518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그림 4>는 일베가 설립된 2011년 5월 이후 2014년 2월 까지 5.18을 다루는 토픽인 토픽 8

이 전체 문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20> 전체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의 월별 토픽 8 분포

한편 일베에서 5.18이라는 단어 자체는 데이터 상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었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LDA분석을 위해 사용한 공개된 한국어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이 아직 충분한 수준으로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베특유의 언어표현양식이 데이터 자체의 노이즈를 증폭시켜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¹¹⁾. 실제 PMI 분석을 해보면 5.18이라는 단어와 50번 이상 직접 연관된 게시물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특정 단어로 검색된 문서 집합의 토픽분포가 보여주듯이 5.18과 '폭동'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 전체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의 평균 토픽 분포와 '5.18'과 '폭동' 단어를 포함하는 게시물의 평균 토픽 분포

이를 근거로 하나의 문서에서 '폭동'과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중 pmi(pointwise mutual information)지수가 3이 넘는 95개의 단어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총기'나 '무기고', '실탄', '기관총'과 같은 단어가 보여주듯이 일베에서의 '광주폭동론'은 시민'군'이 '무

11) 예컨대 민주화운동이 아닌 폭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폭동절', 날짜에 착안하여 '오십팔', 그리고 무엇보다 '광주'자체를 5.18을 대신하는 말로 사용한다.

기'를 들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들은 (전두환이 아닌) '최규하'정권이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¹²⁾, 그의 명령에 따라 발령된 계엄군 역시 정당하다는 논리를 앞세운다. 따라서 희생된 광주 시민들에 대한 언급보다 '신군부'와 '군경', '공수부대'와 같은 진압당사자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5.18항쟁담론에서 이들 진압주체들이 언급된 경우는 대부분 폭력담론인데 반해, 일베에서는 '사상자'나 시위대의 '폭력', '탈취', '약탈'에 포커스를 맞추므로써 그들의 '진압'행위가 '국가진복'을 '주동'하던 '내란'세력을 평정한 이들이 바로 진압주체라며 추켜세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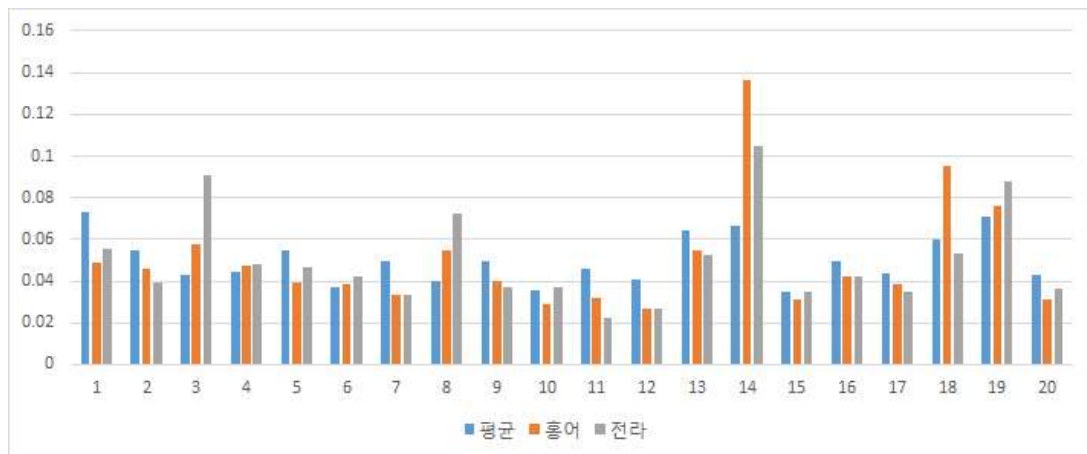
12) 단어와의 상대적 연관빈도를 살펴보는 PMI분석에서 '폭동'이 '전두환'보다 '최규하'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 | | | | | | | | | |
|---------|----------|------|----------|-------|----------|------|----------|------|----------|
| 무기고 | 3.937975 | 봉기 | 3.626739 | 특수부대 | 3.387791 | 부마 | 3.23389 | 특별법 | 3.105403 |
| 계엄군 | 3.8688 | 발포 | 3.617657 | 성역화 | 3.382232 | 총격 | 3.228081 | 좌익세력 | 3.1036 |
| 총기 | 3.833511 | 수류탄 | 3.58792 | 해방구 | 3.374789 | 화염병 | 3.225343 | 남대 | 3.103472 |
| 광주교도소 | 3.817292 | 반란 | 3.575952 | 탄약 | 3.355281 | 포위 | 3.223242 | 시위자 | 3.084981 |
| 무장폭동 | 3.814279 | 정승 | 3.569265 | 파출소 | 3.35228 | 도청 | 3.2198 | 격렬 | 3.081127 |
| 계엄 | 3.777572 | 습격 | 3.554141 | 트럭 | 3.339221 | 대대 | 3.184805 | 상자 | 3.074482 |
| 최규하 | 3.731827 | 수사기록 | 3.552871 | 실탄 | 3.336706 | 부상자 | 3.17894 | 적개심 | 3.067123 |
| 광주폭동 | 3.730124 | 유네스코 | 3.548259 | 기관총 | 3.329168 | 황석영 | 3.175438 | 전남도 | 3.059736 |
| 비상계엄 | 3.720665 | 사상자 | 3.542513 | 관공서 | 3.32197 | 국가전복 | 3.144323 | 주동자 | 3.057747 |
| 군중 | 3.703505 | 무장봉기 | 3.542375 | 교도소 | 3.315444 | 연고 | 3.140903 | 전경 | 3.047262 |
| 신군부 | 3.699017 | 광주사태 | 3.541599 | 돌진 | 3.312639 | 약탈 | 3.135935 | 유공자 | 3.046936 |
| 군용 | 3.693327 | 사망자 | 3.482502 | 살상 | 3.302883 | 지만원 | 3.134 | 연행 | 3.039772 |
| 민주화운동 | 3.686175 | 방화 | 3.477807 | 바로세우기 | 3.298965 | 순경 | 3.133025 | 광란 | 3.036791 |
| 광주시민 | 3.678187 | 계엄령 | 3.472588 | 지휘부 | 3.289621 | 직선제 | 3.131072 | 역사왜곡 | 3.036461 |
| 탈취 | 3.678017 | 항쟁 | 3.470237 | 소총 | 3.288956 | 광주 | 3.130482 | 김재규 | 3.021287 |
| 군경 | 3.655215 | 폭력시위 | 3.458005 | 시위대 | 3.274574 | 양민 | 3.125427 | | |
| 공수부대 | 3.651233 | 장갑 | 3.440451 | 유언비어 | 3.271341 | 전투환에 | 3.122721 | | |
| 광주민주화운동 | 3.647873 | 재조명 | 3.411994 | 성역 | 3.268981 | 칭호 | 3.122721 | | |
| 폭도 | 3.645254 | 진압 | 3.399932 | 무장 | 3.262449 | 주동 | 3.112941 | | |
| 광주에서 | 3.631093 | 내란 | 3.392545 | 내란죄 | 3.25548 | 광주시 | 3.11238 | | |

<표 8> 전체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에서 ‘폭동’과 함께 나타나는 pmi스코어 3 이상의 단어

한편 호남을 지칭하는 문서집합에서 공통적으로 토픽 14, 다시말해 욕설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사이버공간, 특히 일베와 같은 유머사이트의 특성상 플레이밍 (flaming, 이항우, 2003;이철선, 2003)이 다시 발견될 수 있고, 욕설 자체가 극적인 표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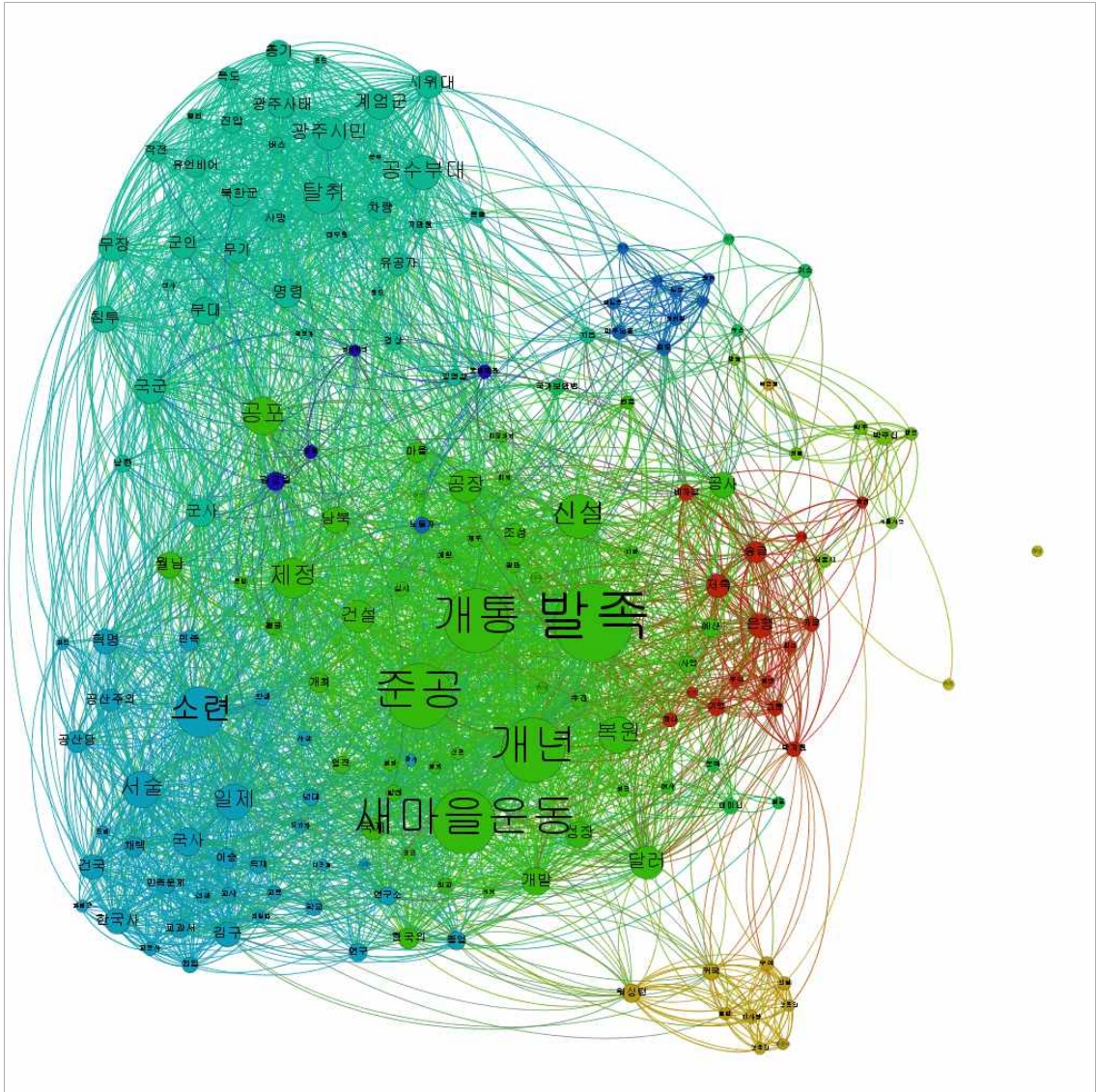
위해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일베에서 반 호남성향 지역주의가 팽배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 전체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의 평균 토픽 분포와 '홍어'와 '전라'를 포함하는 게시물의 평균 토픽 분포

아래 그래프는 단어별 상대적 연관도 지수인 PMI 스코어를 기준으로 그려본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판의 시맨틱 분석결과이다. 그림에서도 나타나듯이 일베 정치게시판은 크게 아홉 개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 가장 자주 다루어진 주제는 개통과 준공, 발족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개발담론이다. 이는 LDA분석상 토픽 4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베의 여타 모든 주제들이 개발과 발전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주제는 왼쪽 위편에 위치하는데, 5.18을 직접 언급하는 단어보다도 공수부대, 계엄군과 같은 진압주체에 대한 언급과 탈취, 유언비어, 폭도와 같은 가치평가어를 자주 언급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5.18수정주의자들의 담론이 일베에서도 상당부분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때 흥미로운 지점은 좌측 하단에 위치한 '소련', '공산주의', '혁명' 등의 이념 클러스터와 518클러스터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이다. 이는 2013년부터 다시 촉발된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이 일정부분 일베에서도 논의가 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518과 호남을 좌파와 연계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념 클러스터 내에 교과서논쟁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례분석에서도 언급되겠지만 많은 일베 이용자들은 자신이 보고 배운 교과서가 '좌파정권'의 입맛에 맞게 편집되었다고 강하게 믿고 있었다. 실제로 많은 이용자들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금언을 되새기며 '역사 바로세우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었는데, <그림 7>은 일베에서 생각하는 올바른 역사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의 개발로 환원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23> PMI지수를 이용한 전체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의 네트워크 분석

2) 5.18 폼훼의 사례와 분석

상기한 것처럼 언론에 알려져 많은 충격을 준 5.18 폼훼 게시물들은 이미 삭제되어 일부 캡처이미지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일베에서 5.18을 보는 관점은 사실상 달라지지 않았기에, 남아있는 자료만 살펴보더라도 지금까지의 논의를 실증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본고에서는 LDA분석상 5.18을 지칭하는 토픽 8을 가장 많이 포함하는 게시물 1,000건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게시물과 댓글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지역주의

우리는 거의 모든 사례에서 5.18 담론과는 상관없이 전라도에 대한 깊은 혐오와 냉소를 볼 수 있었다. 일베 이용자들이 보기에 전라도 출신들은 가난하고 ‘민도’가 낮으며 자기들

끼리만 연합하여 타지인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들이다. 앞선 장에서도 언급되었지만 호남에 대한 일베의 혐오는 매우 넓게 퍼져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면 곧바로 ‘전라도 출신’이 아니냐는 댓글이 달리고 직접적으로 전라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더라도 서남방언을 조합한 일베의 사회방언을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호남혐오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사례 113)은 글쓴이가 광주행 버스를 탄 것을 인증하며 광주, 그리고 5.18을 에둘러 비난하고 있다. 이 게시물은 전라도에 대한 혐오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 한데, ‘순상님’, ‘홍어’가 대표적이다. 우선 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데, 호남 사람들이 김대중을 지칭할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데에 기인하여 이를 서남방언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드립’으로 볼 수 있다. ‘지역드립’은 종종 호남에 한정하여 ‘홍어드립’이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로 홍어는 호남을 표상하는 단어로 자리잡았다. 또한 ‘홍어드립’은 자주 ‘호성드립’과도 연관되는데, ‘호성드립’은 전 해태타이거즈 선수였던 이호성이 처자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을 호남사람들의 폭력성 혹은 야만성의 근거(즉, 팩트)로 들며 희화화하는 것을 말한다. ‘호성드립’은 특히 ‘성님은 힘이 장사셨제’와 같은 표현이 동시에 따라붙는다. 사이버공간에서 전라도 혐오 발언은 서남방언을 이용한 희화화와 김대중에 대한 절대적 지지에 대한 조롱, 그리고 호남 사람들의 ‘민도’자체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¹⁴⁾ 댓글에서는 특히 광주의 치안이나 광주 시민들의 폭력성을 경계하는 발언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진심으로 조심해라 말한마디잘목했다가 어째될줄모른다¹⁵⁾”거나 “홍어국 안위험 하겠냐 몸조심 해라”는 등의 발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게시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은 광주를 ‘적’으로 명시한 지점이다. 이것은 5.18을 무장폭동으로 보는 관점과 연결되어 ‘외국’으로 취급하는 일베의 경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일베에서는 호남이 한반도의 ‘7시 방향’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7시국國’, 혹은 ‘홍어국’으로 부르며 호남을 ‘국민’의 범주에서 제외시킨다. 댓글에서도 이러한 인식은 그대로 반복된다. 광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일베 이용자에게 “여권없으면 너두 외노자다 걸리면 강제추방이고 치외법권지역이다ㅋㅋ조심해”라고 한 말이 대표적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일베에서는 같은 일베 이용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사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행동은 ‘친목질’이라 하여 주된 제재의 대상이 되는데, 하물며 스스로를 광주출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커다란 금기에 해당한다. 이에 “홍어새끼야 왜 태어났노?”나, “너 홍명으로 건계에 신고한다ㄱㅅ”와 같은 비난이 함께 나타난다. 또한 게시자에게 ‘여권’이나 ‘비자’를 가지고 갔느냐고 묻는 이들이 많았는데, 이는 광주·호남에 대한 타자화가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일어났는지를 보여준다.

13) <http://www.ilbe.com/1239887703>

14) 이는 디시 시절 대구를 ‘고담’이라고 부른 것과도 대비된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각 도시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냈는데, 예컨대 대구에서는 ‘황당한’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인천 지역에서는 강력사건이, 광주에서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공식화되기도 한다.

15) 이하 제시되는 사례에서 직접 인용문은 가급적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 띄어쓰기 등 맞춤법을 수정하지 않고 일베에서 작성된 텍스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

사례 216)는 일베에서의 518평화의 또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운영자(모니터링)가 이용자들에게 직접 질문을 한 흔치 않은 사례를 캡처한 것이다. 그에 대한 답글은 일베에서의 518평화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일베충’의 단순무식한 논리와는 전혀 다르게도 “518을 보는 시각이 다양”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518옹호자(진보진영)을 비꼴겸 일베가 유머사이트이므로 유머(드립)도 칠겸 검사검사”라는 말은 일베의 지역혐오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적시하고 있다. 우선 일베에서는 518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진보진영’으로 국한시킨다. 이는 바꿔말하면 일베 이용자들이 보기에 518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광주민중화운동’이라기보다는 ‘광주사태’이며 518을 신격화시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진보세력’의 ‘음모’가 있다는 생각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지역주의를 설명하며 민주화의 가치, 나아가 진보를 상징하는 지역으로서의 광주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요컨대 518평화함으로써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진보진영 자체라는 것을 뜻하는데, 일베에서 보는 진보는 곧 종북과 다르지 않으므로 자주 ‘북한개입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또한 드립을 유머로 국한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이들에게 있어 지역드립은 정도가 심할 지언정 어디까지나 일베에서 통용되는 유머코드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들이 보기에 ‘진보단체’의 ‘고소크리’는 유머도 이해하지 못하는 ‘씹선비’일 뿐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스스로의 발언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클리셰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베가 인식하는 한국사회의 문제는 지역보다는 이념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캡처의 대상이 된 운영자 ‘모니터링’은 댓글에서 “518드립은 대중 알고 있었는데 노잼인데 계속 올리니깐 물어본것임”이라며 애초에 ‘유머코드’로서의 ‘518드립’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진다. 물론 이같은 질문에 “뭐 드립도 모르는 병신년아”며 욕설을 한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모니터링’의 의견에 동조하는 의견도 많았다. 한편 518평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답변들도 많이 나왔다. 예컨대 “명절날 세배는 꼭 재미로 하는 건 아니다”는 대답은 518평화가 일베 이용자들의 의례임을 드러내고, “강 폭동절이니 까 일베 한번 가볼 생각에 머리속에서 드립을 쥐짜내는거지 애새끼들은 좆도 재미없지만 의무감에 일베주게되거”라는 대답은 ‘일베가 되고자 하는 욕망’, 말하자면 일베 내에서의 인정을 받기 위한 상황적 전략 중 하나가 더 자극적인 518평화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그로’로서의 518드립이 ‘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유저들도 많았는데, “518갖고 드립치면 흥어들 광분하잖아”라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5.18 수정주의

사례 317)은 일베에서 5.18수정담론이 가장 많이 언급되던 시기인 2013년 5월 초에 게시된 글이다. 게시자는 그간 5.18수정주의자로 악명이 높았던 ‘역사학도’ 김대령이 <역사로서의 5.18>이라는 책을 ‘자발적’으로 광고하고 있는데, 그는 김대령을 “잘못된 조국의 현

16) <http://www.ilbe.com/1244900688>

17) <http://www.ilbe.com/1204564793>

대사를 바로잡고자 지난 수십년간 논객 활동을 해오셨던 바로 그 분!”이라며 그를 지만원과 함께 “진정한 대한민국의 민주투사”라고 지칭하고 있다. 총 1,195개의 추천과 104개의 비추천을 받은 이 게시물에 달린 댓글은 그간 ‘팩트’에 목말라하던 일베 이용자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이들의 평가에 따르면 ‘역사학도’는 “좌파자료들 쪽 검토하면서 모순점들(을) 파헤”친 사람으로써 “5.18주동자들의 행적과 5.18의 사건들을 맞춰”보면 5.18이 좌파들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는 사실을 폭로한 사람이다. 그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그가 ‘진실’을 알리기 위해 치루어야 할 대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미 ‘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공중파에서 5.18의 진실을 알리려 했다간 “목숨걸어야”하는 사태가 빚어지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 수 십년간 홀로 연구한 성과를 책으로 내놓는 것을 일베 이용자들은 커다란 희생과 용기로 이해했다. 쉽게 말해 그가 “총대 매고 출간”했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들은 이 저서가 당시 논란이었던 교과서 개정문제와 더불어 최대한 이슈가 되기를 희망했는데, 책을 구입하는 것은 개인적인 움직임일 뿐이라며 “동네 시립도서관에 희망도서”로 신청할 것을 요청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러한 주장은 일베에서도 5.18을 담론투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한편 이들이 스스로를 ‘소수자’라고 부르는 것보다 깊은 연관이 있다. 즉 일베 이용자들은 광주 민주화운동이 공식적인 국가담론에 있게 된 ‘배후’에는 8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곳곳에 숨어들어간 ‘좌파’들이 지식사회를 잠식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소수자 담론의 전회는 이들이 스스로의 주장을 ‘정의’롭다고 여기게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스스로를 소수자로 위치시키는 전략은 이른바 ‘역차별’론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들이 보여주는 소수자화와 역차별론, 표현의 자유 등은 그들이 스스로를 일컬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거짓만은 아니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일베 이용자들을 ‘청년’세대로 가정한다면, 아마도 이 사실이 많은 이들에게 일베가 놀라움의 대상이 된 이유이겠지만, 이들이 민주주의의 제도와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의 대항담론이 만들어지는 전략을 살펴보면, 이들이 공격하는 것을 ‘민주주의’ 자체로 보는 시각은 지나치게 문제를 단순화시킨 것이다. 오히려 일베 이용자들의 ‘소수자’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알바’등으로 쉽게 매도되는 일상의 불편함이 그들을 동세대 사이에서 더욱 고립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현실을 ‘진정’으로 요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게시자의 의견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역사학도’를 지나치게 우대한다며 불편함을 표현했다. ‘박사’와 같은 수식어로 저자의 권위를 과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이 게시물도 결국 ‘선동’이며 ‘광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냉소를 표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러한 반응은 ‘모두가 병신’이라는 일베적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는 한편 일베적 합리주의를 보여주는 하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일베적 합리주의란 일베 이용자들이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적’인 ‘좌파들’의 결정적인 단점, 다시

말해 ‘감정’적이고 ‘무비판’적이며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좀비’의 행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이다. 이는 논증의 근거를 요구하는 상호작용 의례로 구체화되고 이용자들간의 친목까지도 금기시하는 일베의 문화를 특정짓는 바, 앞선 3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팩트’와 ‘합리’에의 강한 요구를 동반하게 된다. 김대령의 책에 대한 일베 이용자들의 열광 역시, 5.18을 폭동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얻었다는 기쁨에서 온 것이지만 반대로 이 열광 자체가 ‘좌파좀비’와 같은 행태가 아닌지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는 일베의 패러독스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일베의 정의 : 역차별, 도덕경제, 그리고 정당성

사례 418)는 각각 독립군 후손과 6.25참전용사, 베트남 과병장병의 현재모습을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들의 이미지로 대치시키고 그와 비교하여 친일작가로 알려진 김완섭 씨의 광주민주유공자증 사진을 붙여 넣으며 적을 상대로 싸우지 말고 정부를 상대로 싸우자”라는 냉소적인 결론을 내고 있다. 711개의 추천과 31개의 비추천을 받은 이 글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이끌어냈다. 적지 않은 이용자들이 “극단적인 사례”만 짜깁기 한 것이라며 이 또한 하나의 선동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이 게시물과 댓글 상호작용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5.18유공자에 대한 ‘과도한’ 보상이다. 이들은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보상을 ‘치트키’라고 표현했는데, “광주폭도 주도자 자녀들 전부 대학 특례 입학에 가산점 10퍼”센트나 받고 “호위호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혜’를 특히 불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이 ‘들고 일어난’ 대상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부’라는 데 있었다. 이러한 특혜를 위해 자신들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데 대한 분개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공분의 핵심은 ‘역차별’론으로써 사례 1에서 살펴본 소수자 전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 한 것은 일베 이용자들이 내면화한 도덕경제(moral economy)이다. 이들이 보기에 “백번 양보해서 민주화운동이라 쳐도 6.25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북한의 남침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 노인이 되었고,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빼앗은 북한 정권은 여전히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 현재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도덕적인 부채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베의 시선에서 5.18은 ‘적’이 아닌 ‘정부’를 향한 ‘폭동’이었고, 민주화라 할지라도 이미 8-90년대를 거치며 민주주의가 제도화되고 공고화되어 도덕적 부채의 시효가 소멸됐다. 이러한 일베의 도덕경제는 일베 이용자로 하여금 5.18과 그에 대한 기억, 추모가 도덕적으로 ‘등가교환’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게 한다. 즉 이 게시물에서 나타나는 ‘공적인 분노’는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희생당한 이들에 대한 추모는 이미 ‘과도’하고, 여전히 실재하는 적에게 투사되어야 할 감정이 더 크다는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물며 5.18을 북한에 의해 선동된 전라도 인들의 폭동으로 본다면 이러한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게시물에서 볼 수 있는 참전용사들과 광복군 후손들에 대

18) <http://www.ilbe.com/1286941933>

한 일베 이용자의 깊은 공감은 그들의 도덕적 부채의식이 민주주의 자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있기에 가능하다. 이는 역으로 이들이 느끼는 부채의식의 핵심엔 대립쌍으로서의 북한이 항상 접합된 실을 유추할 수 있는 동시에, 국가는 가해자의 위치에 설 수 없다는 믿음을 보여준다¹⁹⁾.

사례 5²⁰⁾은 사례 1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5.18수정주의 담론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것이 5.18의 FACT다!!!!!!”라는 다소 과장스러운 제하의 이 게시물은 기존에 일베에 게시된 글을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광주항쟁당시 시민군들의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이미지와 “5.18의 진실”이라며 지만원의 책을 요약·발췌하고 있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5.18은 “헌법기관이 내린 정당한 명령”에 따라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광주의 대학생들”이 “헌법기관이 내린 명령을 위반”했으며 각종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특히 “구두땀이 엉마주이 등으로 대표되는 소외계층”과 광주 시민이 공수부대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거리로 뛰어나왔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게시물은 5.18을 철저히 지역주의와 북한의 선동에 인한 사건으로 격하시키고 있는데, “경상도 사람들을 집단으로 구타하여 살해했고, 경상도 차량들을 보면 불태워버렸고, 경상도 사람이 운영하는 상점을 불태워버렸다”며 이러한 ‘폭동’의 근원이었던 유언비어의 “진원지는 북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라도의 “열등의식”을 거론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는데, 끝이어서 “44개의 무기고”가 “동시 탈취”되었다는 사실을 보건대 “분명히 지휘부가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며 북한 개입설을 또 다시 거론한다. 또한 5.18 수정주의자가 항상 걸고넘어지는 ‘경찰 최초 희생자’론도 나타났다.

이 글은 693개의 추천과 144개의 비추천을 받았다. 하지만 댓글은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게시자가 ‘가져온’ 글이 기존에 유명한 글이었다는 점에서 일베를 ‘날로먹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불만은 각자의 ‘창의성’을 겨루어 타인들에게 인정받는 구조로 작동하는 일베의 공간적 특성이 이용자들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근거로도 활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머사이트라는 태생상 ‘중복’은 크나큰 일탈인 것이다. 둘째, 대선 이후 정착된 정치 관련 글은 정치게시판에 게시해야 함에도 그 규칙을 어겼다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이들도 많았다. 셋째, 위의 두 가지 불만에 대해 게시자가 보여준 지나친 ‘독선’때문이었다. 그는 ‘정치 게시판에 올려라’라든가 ‘피운 글을 자기 글인 양 올리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 전라도 출신자들의 ‘분탕’이라며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근거를 요구하는 이들에게조차 자신(정확히는 글쓴이)의 논거를 시종일관 “광주사태 수사 기록 18만페이지를 지만원 박사가 6년간 전부 검토해서 2008년 출판한 ‘12.12, 5.18’과 2010년 출판한 ‘솔로몬 앞에선 5.18’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라며 지만원 ‘박사’를 절대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와 합리주의를 표방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표면상으로나마 ‘합리적 공론장’을 지향하는 일베 이용자들에게 글쓴이의 태도

19) 만약 우리가 일베의 보수성을 논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이들이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발화의 준거가 항상 국가에 있다는 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20) <http://www.ilbe.com/637585285>

는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라 상당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지만원이라는 권위에 기댄 게시자의 글 역시 선동의 하나라는 지적도 자주 나왔다. 넷째, 일베에서 불문율로 여겨지는 ‘3줄 요약’이 없이 긴 글줄로 이루어진 게시물이라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사례 3과 같은 ‘긴 글’은 ‘좌썸’들을 설득시키기에 설득시키는 주체인 자신조차 요점을 잘 이해할 수 없으므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게시물에서도 스스로를 ‘소수자’와 ‘약자’로 등치시키는 댓글이 자주 보였는데, 대법원의 판결이나 교과서가 결국 “김영삼-김대중-노무현 15년간 좌과정권”이 만들고 “역사라는 것은 정권 잡고, 힘있는 놈이 입맛대로 고치는” 것이라는 게시자의 댓글이 인상적이다. 소급입법으로 법치주의의 원칙을 어기고 “다 끝난 사건을 다시 관뚜껑 열어서 부관참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완전히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수정주의는 다양한 ‘근거’를 제공하여 기존의 관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새로 취임하신 가카(박근혜)가 바꾸실 수도 있겠”다며 “바꾸는 건 몰라도 확실히 광주사태에 대해서는 확실히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것같”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이 사례가 아니더라도 5.18의 ‘팩트’를 다룬 게시물들의 댓글에서 ‘이런 저런 의견이 많으니 다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숙고’가 자주 나타나는 것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례 6²¹⁾는 5.18을 촛불집회와 비교하며 “광주사태가 폭동인 이유”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종편과 지만원 등에 의해 유포된 북한 개입설이 사실상 기각된 시점인 2013년 8월에 게시된 이 글은 일베에서 5.18을 비난하는 논리가 반 호남 지역주의와 ‘폭력시위론’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편 기실 촛불집회에 대한 반감과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게시물은 여타 수정주의론이 그러하듯 ‘헌법에 의한 합법적 정부’임을 전제하면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는 촛불집회와 5.18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타도하려 했다는 점, 불법폭력시위였다는 점, “악질적인 유언비어 잔치판”이었다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기에 5.18 역시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촛불집회, 소급하면 거의 모든 집회와 시위에 대한 일베 이용자들의 거부감은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이들이 혐오하는 것은 ‘불법’‘폭력’집회이다. ‘신상털이’와 ‘패드립’으로 악명높은 일베에서 ‘합법’에 대한 강박이 있다는 사실은 다소 놀라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신념’과 ‘믿음’을 논하면서도 그것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의 영역이라며 끊임없이 근거를 찾아나선다. 때문에 5.18을 ‘광주사태’라고 칭하고 싶어도 당대의 ‘법’이 무엇이었는지를 두고 끊임없이 갑론을박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일베 이용자들의 ‘공감’은 희생자나 시위대가 아닌 그들을 ‘막고 진압하는’ 법의 대행자인 경찰과 군인에게 향한다. 자신을 촛불집회 당시 기동대원이라고 밝힌 이용자에게 많은 이들이 “너야 말로 진짜 영웅”이라며 찬사와 존경을 보냈고, ‘불법’집회를 막은 당시 의경들이야 말로 진짜 애국자라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5.18 유족들을 비하하던 이들이라

21) <http://www.ilbe.com/1758838894>

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전도된 공감은 일베 이용자들이 행위의 정당성을 ‘합법성’에 국한시켜 찾는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5. 결론

한국사회에서 5.18담론의 첫 번째 국면은 1980년부터 1987년 까지 신군부에 의해 왜곡되고 날조된 폭동담론이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강요된 헤게모니’는 1984년을 전후로 대항담론으로서의 민주항쟁론과 충돌했고, 민주화 이후 점차 지배적 담론이 되다가 1993년 이후 본격적으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담론이 강화됐다. 이 과정에서 5.18특별법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와 망월동 묘역의 국립묘지화, 5.18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과 같은 제도가 마련됐다. 5.18 담론의 국가화는 사이버 공론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속되었고, 진보적 성향을 가진 네티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던 2007년 까지 이러한 5.18 이해는 확고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퇴출된 것으로 생각되던 5.18 수정주의자들은 그들의 담론을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키게 되었는데, 2008년 이후 사이버 공간의 대 분열(혹은 양극화)로 인해 보수적 네티즌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들의 5.18 수정주의가 받아들여지게 됐다.

일베는 다시로부터 연원할 수 있는 의례와 언어표현양식을 ‘계승’하고 2009년을 전후로 한 시점에서 널리 퍼진 ‘드립’으로서의 지역주의를 체화했으며 인터넷 상에서만 활동하는 좌파들-키보드워리어-에 대한 반감으로 보수주의를 채택한 이들이다. 이러한 반감은 촛불집회와 천안함 폭침사태 및 연평도 포격사건을 거치며 더욱 강고해졌고 ‘인증대란’등을 거치며 통일된 문화와 표상을 공유하는 집단이 되었다.

일베에서 5.18은 민주화의 상징이라기 보다는 ‘시위대’가 국가의 에이전트인 ‘계엄군’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폭동’으로 이해됐다. 이는 일베가 형성되기 전부터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던 5.18왜곡 담론과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일베를 통해 확대재생산된 5.18수정주의는 상당부분 지만원, 역사학도 등의 이데올로그들에게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시 몇몇 갤러리에서 유행하던 새로운 지역주의라 할 수 있는 ‘지역드립’이 개입되어 7~80년대의 다른 민주화운동과 5.18을 차별화하여 더욱 가시적인 비난 대상으로 부각시켰다.

2014년 4월 3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침몰사고는 한국사회 전체에 집단적 트라우마를 남겼다. 사건이 일어난 진도와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안산은 물론이고 전국에 세워진 임시분향소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찾아 사회적 고통에 대한 애도를 표시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사회의 자화상’이라 할 정도로 많은 면에서 씁쓸함을 던졌다. 탐

승객들에게는 기다리라는 명령만을 남기고 구명보트에 누구보다 먼저 몸을 실은 선장과 항해사들은 국민적 공분(公憤)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언론은 무수한 오보와 뿐만 아니라 초동대처는 물론 침몰 이후의 수색-구조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무능력한 대처 또한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일베에서는 희생자 부모들에 대한 비아냥과 비판이 많았다. 많은 이들이 유족들에게 ‘이성’을 요구하고 정부를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선동꾼’이 아니냐며 비판하며 유족들을 ‘유족충’이라 부르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유족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과는 대비되게도, 일베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도 유족들에 대한 공감보다는 현장에서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잠수를 하는 요원들과 대통령 등 정부측 인사들에게 더 많은 공감과 지지를 표명했다. 일베가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일부에서는 ‘공감불가능성’을 우려한다. 이러한 모습은 5.18을 폭동으로 비하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베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일베 이용자들은 5.18을 보며 당시 투입된 공수부대원들과 군부에 더 깊게 공감하며 ‘지원하게’ ‘사태’를 해결한 것에 찬사를 보냈다. 그들에 의해 희생당한 이들에게는 ‘선동’에 놀아나 ‘나대다가’ 피해를 입었으니 그의 책임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유가족들과 5.18유공자들에 대한 태도 역시 현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보는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일베 이용자들이 ‘공감’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감정사회학자들의 말처럼 문화적, 사회적 구성물인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것이 표출되는 방식이 변할 뿐이다.(바바렛, 2007; 메스트로비치, 2013) 일베 이용자들이 희생자들의 시신에 환호하고 유가족을 보상금이나 노리는 속물로 이해하며 대통령과 군인, 잠수부를 지지하는 것은 그들의 공감이 희생자보다는 가해자에게 향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이들의 공감대상은 ‘승리자’인 ‘가해자’에게 향한다는 것인데, 이는 5.18 수정주의에서 북한 특수부대 침투론이 상기시키는 것처럼 결국 민중은 스스로 어떠한 생각이나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나온다. 이는 촛불집회가 ‘선동’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이해와도 맥락을 같이하며, 이러한 생각은 일베 이용자들이 엘리트주의를 내면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즉 일베 이용자들의 ‘전도된 공감’은 스스로의 위치를 패배자로 상정할 수 없는 상상력의 결여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 상상력의 결여는 ‘약육강식’과 ‘우승열패’를 내면화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받고 자기계발하는 주체(서동진, 2012)들인 ‘20대’의 멘탈리티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존의 수정주의가 훼손된 자신들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 읽을 수 있다면, 일베 이용자들이 열광하는 5.18수정주의는 후기자본주의적 삶의 태도와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5.18수정주의와는 근본적으로 그 맥락을 달리한다.

특히 이들이 6.25 상이용사와 5.18유공자를 비교하며 분노한 대목에서 우리는 일베 특유의 정의감과 도덕경제(moral economy)의 작동원리를 엿볼 수 있었다. 이들이 보기에 5.18은 정부를 향해 일어난 ‘폭동’임에도 그 ‘유공자’들은 과도할 정도로 많은 보상을 받았

다. 80년 5월에 정부를 향해 시위를 하던 이들이 요구하던 사항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모두 이루어졌고, 명예회복도 '완료'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전쟁 상이용사들과 비교되었을 때 나오는 일베의 분노는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빛'이 남아있기에 여전히 '깊아야 할' 도덕적인 빛이 남아있지만, 독재는 이미 청산되었기에 5.18유공자들에 대한 빛 또한 청산되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때 가능하다. 일베 이용자들이 공유하는 이러한 도덕경계는 일베에서 '비추천'이 '민주화'로 표현된다는 점이 상징하는 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모든 이들의 게으름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일베를 '루저들의 집합'이라거나 '정신병자들'로 비하하며 타자화시키는 것은 "일베를 통해 우리가 가진 어떤 혐의와 불안을 해소하려는"(윤보라, 2013)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이들의 발언은 실로 금도를 벗어났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의 공분을 얻고 실제 사법처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단순히 '일베'라는 사이트가 사라지기만 하면 해결될 일일까? 일베를 악마화하는 최근의 시도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까닭이다.

참고문헌

- 구자순, 2008, "사이버공간에 대한 한국 사회학의 연구 동향-1997~2007",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김보경, 2013, "5·18 민주화운동 과거청산 '부인denial'연구", 5·18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발표집
- 김희송, 2013, "5.18항쟁 시기 군부의 5.18담론", 『민주주의와 인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뒤르켐. E, 1992,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노치준 민혜숙 역, 민영사
- 서머.M, 2007,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류운 역, 바다출판사
- 송정민, 1997, "광주민중항쟁에서의 언론의 선택과 역할", 나간채 편, 1997, 『광주 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알렉산더.J, 2007, 『사회적 삶의 에너지:문화사회학』, 박선웅 역, 한울
- 윤보라, 2013, "일베와 여성혐오: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진보평론 57호
- 이재승, 2013, "홀로코스트 부인-자유로운 표현에서 인도에 반한 범죄, 전쟁범죄까지", 5·18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발표집
- 이철선, 2003, "가상 공동체에서의 플레이밍(Flaming)에 관한 연구", 『마케팅연구』 Vol.18 No.1, 한국마케팅학회
- 이항우, 2003, "사이버공간에서의 적대성; 한 온라인 토론그룹에서 벌어지는 '플레이밍(flaming)'에 대한 연구", 『정보와사회』 No.5, 한국정보사회학회
- 장우영, 2006, "사이버공간의 이념과 정치 : 한국 사이버 공론장의 구조 변동", 『한국과 국제정치』, 22권 4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전재호, 1999, "5.18 담론의 변화와 정치변동." 학술단체협의회 편, [5.18 은 끝났는가](238~ 265 쪽), 푸른숲
- 정근식, 1997, "민주화와 5월운동, 집합적 망탈리테의 변화", 나간채 편, 1997, 『광주 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정일준, 2004, "5.18담론의 변화와 권력-지식관계:역사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최태섭, 2012, 최태섭. "전자정의 (電子正義) 의 탄생." 황해문화
- 클린스.R, 2009, 『사회적 삶의 에너지:상호작용 의례의 사슬』, 진수미 역, 한울아카데미
- 호네트.A, 2011, 『인정투쟁』, 정성훈 이현재 역, 사월의 책
- Blei, 2012, Blei, David M.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 Fogo-Schensul, 1997, "More Than a River in Egypt: Holocaust Denial, The Internet, and International Freedom of Expression Norms", Gonzaga Law Review
- Kay and Meddaugh, 2009, "Hate Speech or Reasonable Racism?: The Other in Stormfront", Journal of Media Ethics
- Rydgren, 2007, "The Sociology of the Radical Right",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33: 241-262 (Volume publication date August 2007)

뉴스기사

"디시, 아고라 대신 일베, 뽐뿌가 대세", <매경이코노미>, 제 1721호

"일베 회원들, 애정결핍에 열등감 많은 비겁자", <한국일보>, 2013년 5월 28일

"온라인 극우파 결집코드는 '혐오'", <주간경향>, 2012년 6월 19일

"'일베'를 생각한다", <시사in>, 2013년 5월 21일

"왜 국정원은 오유에 댓글을 올렸을까", <동아일보>, 2013년 5월 10일

인터넷

www.ilbe.com

www.rigvedawiki.net